

'2022

한국통역번역학회-계명대 한국학 연구원  
봄 정기 학술대회

'한국을 번역하다: 아웃바운드번역과 지식·문화의 확산'

Translating Korea:

Outbound Translation & Knowledge and Cultural Dissemination

# 목차

## 페이지

발표 자료집 목차		2
학술대회 프로그램		5
학술대회 저작물 사용에 관한 안내		8
<b>개회사 및 축사</b>		
개회사	성승은 회장 (한국통역번역학회)	
축사	장소원 원장 (국립국어원)	9
기조 특강	중국 전통의 불교경전 번역과 그 역사적 의의	11
	이윤갑 원장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세계출판시장에서의 번역가의 역할과 그 가치	23
	이구용 대표 (KL 매니지먼트)	
<b>세션 A</b>		
한국을 번역하다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into English in North and South Korea		26
	Theresa M. Hyun (York University)	
Strategies for Translating K-Pop Narration and Korean Poetry		52
	제이크 레빈 (계명대)	
번역문학에서의 젠더 감수성	마승혜, 김순영 (동국대)	76
<b>시와 음률의 번역</b>		
한국현대시의 영어 번역 연구	이지민, 로레나 (계명대)	96
메쇼닉의 번역 시학에 비취 본 김훈 『칼의 노래』 영어 번역 고찰		115
	채경화 (이화여대)	
판소리 <Mother>가 영어로 창작되는 과정		137
	S홍승연 (한국외대)	

## 번역과정, 번역자, 지식의 확산

Translation as co-learning process: Between and beyond Korean and English	155
Jieun Kiaer (Univ. of Oxford)	
The role of indirect translation in the dissemination of Korean literature in Spain	168
Ester Torres-Simón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한국문학 영어 번역에서 번역가의 역할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195
최은경 (한국외대)	

## 세션 B

### 번역과 한국학

한국학 번역 뉴앙스 아카이빙	최원재 (동국대)	215
CiteSpace를 이용한 중한 번역 연구 동향 분석 - CNKI(1992-2021년)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서화 (광동외어외무대학교남국상학원)	
한국 드라마의 러시아어 번역 분석	Netrebina Kseniya (한국외대)	256

### 영상번역과 기술의 활용

영상 자막에 나타난 인유(allusion) 번역 사례 연구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과 <지옥>의 영어자막을 중심으로	배유진 (동국대)	265
아웃바운드 번역과 LQA	김정연 (로햄튼대)	280
게임 번역에서 CAT툴의 활용과 용어 일관성	Alex Kang (Bridge Trans.)	292

### 아웃바운드 번역

반디의 『고발』 절렉스트를 통해 보는 번역학과 한국학의 상호 기여	310
성승은 (한국외대), 박소영 (육사) 외 3인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에서 고유명의 러시아어 번역 양상 고찰	316
강동희 (한국외대)	
한영 영상콘텐츠의 번역과 감수: KBS World를 중심으로	332
서정예, 조성은 (한국외대)	

## 세션 C

### 영화 아웃바운드 번역

한국 영화 영어 더빙의 멀티모달 응결성 분석: 온뮤트 더빙을 중심으로 351

윤미선 (동국대)

영화 <옥자>의 한국어 화면해설과 영어 화면해설 비교-정보성의 차이를 중심으로 371

박건영 (한국외대)

영화 <기생충>의 한일 및 한영 자막 비교연구 389

유준희 (이화여대)

### 중국어로 번역하다

<웃소매 붉은 끝동>의 중국어 자막번역 오류사례 일고 408

김홍매 (남국상대학교)

소설 「삼포 가는 길」의 중국어 번역본 간 서술 방식 연구 420

웨이잉, 김지혜 (이화여대)

젠더번역 관점에서 『82년생 김지영』 번역 분석—중역본의 여성 인물 재현을 중심으로 440

이범 (이화여대)

### 번역 교육과 인재 양성

외국인 유학신입생의 학업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 466

이선영 (동국대)

메타버스를 활용한 통번역 교수방안 489

이계연 (한국외대)

통번역학 박사과정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509

이지은 (이화여대), 송연석 (한국외대)

### 연구 윤리 교육

543

### 우수 논문상 시상식 및 폐회

# 2022 한국통역번역학회-계명대 한국학연구원

## 봄 정기 학술대회 프로그램

주최: 한국통역번역학회-계명대 한국학연구원

일시: 2022년 3월 26일(토요일) 9:50~17:30

장소: ZOOM 온라인 개최

### 전체세션 & 세션 A

<https://us02web.zoom.us/j/5422253753?pwd=bUhlT1NZZVZkeGQ5Q2RodFI3K1RPUT09>

회의 ID: 542 225 3753

암호: ksci

### 세션 B

<https://us02web.zoom.us/j/2089509150?pwd=QWh6VW8yUi9rVnFJSkN1VndTUXFMUT09>

회의 ID: 208 950 9150

암호: ksci

### 세션 C

<https://us02web.zoom.us/j/88637948896?pwd=cDFaM2pUV25zeXJ1VjBLQmphKzhndz09>

회의 ID: 886 3794 8896

암호: ksci

### 프로그램

9:30~	등록		
9:50~	개회사 및 축사	성승은 회장 (한국통역번역학회)	
		장소원 원장 (국립국어원)	
10:00	기조 특강	중국 전통의 불교경전 번역과 그 역사적 의의 이윤갑 원장 (계명대 한국학 연구원)	
10:40		<세계출판시장에서의 번역가의 역할과 그 가치> 이구용 대표 (KL 매니지먼트)	
11:20		<토론: 경남대 박윤철, 한국외대 우경조>	
	<b>A</b>	<b>B</b>	<b>C</b>
	한국을 번역하다 사회: 한국외대 임향옥	번역과 한국학 사회: 한국외대 정호정	영화 아웃바운드 번역 사회: 중앙대 원종화

11:30~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into English in North and South Korea  Theresa M. Hyun (York University) <토론: 평택대 최경희>	한국학 번역 누앙스 아카이빙  최원재 (동국대) <토론: 동국대 정윤길>	한국 영화 영어 더빙의 멀티모달 응결성 분석: 온뮤트 더빙을 중심으로  윤미선 (동국대) <토론: 경희대 조재범>
12:00~	Strategies for Translating K-Pop Narration and Korean Poetry  제이크 레빈 (계명대) <토론: 숙명여대 이형진>	CiteSpace 를 이용한 중한 번역 연구 동향 분석 - CNKI(1992-2021 년)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서화 (광동외어외무대학교남국상학원) <토론: 숙명여대 강수정>	영화 <옥자> 의 한국어 화면해설과 영어 화면해설 비교-정보성의 차이를 중심으로  박건영 (한국외대) <토론:한국외대 서수연>
12:30~	번역문학에서의 젠더 감수성  마승혜, 김순영 (동국대) <토론: 한국외대 윤선경>	한국 드라마의 러시아어 번역 분석  Netrebina Kseniya (한국외대) <토론: 한국외대 서유경>	영화 <기생충>의 한일 및 한영 자막 비교연구  유준희 (이화여대) <토론:이화여대 김민정>
13:00	<b>점심 식사</b>		
	<b>시와 음률의 번역</b> 사회: 한국외대 조성은	<b>영상번역과 기술의 활용</b> 사회: 고려대 이영훈	<b>중국어로 번역하다</b> 사회: 이화여대 손지봉
14:00~	한국현대시의 영어 번역 연구  이지민, 로레나 (계명대) <토론: 계명대 최진실>	영상 자막에 나타난 인유(allusion) 번역 사례 연구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과 <지옥> 의 영어자막을 중심으로-  배유진 (동국대) <토론: 동국대 이경희>	<옷소매 붉은 끝동> 의 중국어 자막번역 오류사례 일고  김홍매 (남국상대학교) <토론:가톨릭대 이지영>
14:30~	메쇼닉의 번역 시학에 비취 본 김훈 『칼의 노래』 영어 번역 고찰  채경화 (이화여대) <토론:이화여대 명선혜>	아웃바운드 번역과 LQA  김정연 (로햄튼대) <토론: 중앙대 진실희>	소설 「삼포 가는 길」의 중국어 번역본 간 서술 방식 연구  웨이잉, 김지혜 (이화여대) <토론:이화여대 강경이>
15:00~	판소리 <Mother>가 영어로 창작되는 과정	게임 번역에서 CAT 툴의 활용과 용어 일관성	젠더번역 관점에서 『82 년생 김지영』 번역 분석—중역본의 여성 인물 재현을 중심으로

	홍승연 (한국외대) <토론: 한국외대 최은경>	Alex Kang (Bridge Trans.) <토론: 한국외대 이준호>	이범 (이화여대) <토론: 이화여대 장애리>
15:30	휴식		
	<b>번역과정, 번역자, 지식의 확산</b> 사회: 경희대 이미경	<b>아웃바운드 번역</b> 사회: 중앙대 성초림	<b>번역 교육과 인재 양성</b> 사회: 한국외대 이주연
16:00	Translation as co-learning process: Between and beyond Korean and English  Jieun Kiaer (Univ. of Oxford)  <토론: 이화여대 허지운>	반디의 『고발』 결텍스트를 통해 보는 번역학과 한국학의 상호 기여  성승은 (한국외대), 박소영 (육사) 외 3인  <토론: 육사 유정화>	외국인 유학신입생의 학업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  이선영 (동국대)  <토론: 동국대 김순영>
16:30	The role of indirect translation in the dissemination of Korean literature in Spain.  Ester Torres-Simón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토론: 한국외대 최은아>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에서 고유명의 러시아어 번역 양상 고찰  강동희 (한국외대)  <토론: 한국외대 정혜린>	메타버스를 활용한 통번역 교수방안  이계연 (한국외대)  <토론: 한국외대 이현경>
17:00	한국문학 영어 번역에서 번역가의 역할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최은경 (한국외대)  <토론: 한국외대 홍승연>	한영 영상콘텐츠의 번역과 감수: KBS World 를 중심으로  서정예, 조성은 (한국외대)  <토론: 한국외대 최경인>	통번역학 박사과정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이지은 (이화여대), 송연석(한국외대)  <토론: 동국대 홍정민>
17:30	<b>우수 논문상 시상식 및 폐회</b>		

## 학술대회 저작물 사용에 관한 안내

한국통역번역학회 정기 학술대회의 온라인 개최에 따른 콘텐츠 활용에 관한 저작권 규정을 안내 드립니다.

한국통역번역학회에서는 발표자가 동의한 경우, 학술대회 종료 후 발표 녹화 영상을 학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외 학술대회 중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학술대회 내용을 사용하시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저작권법 상의 규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저작물의 복제는 **사적 복제**에 해당하여 복제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려는 목적인 경우는 위와 같은 사적 복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표자, 발표 장면, 발표 자료의 화면 캡처 및 음성 녹음**의 게시행위는 명백히 저작권법상 **복제행위** 또는 **전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콘텐츠를 활용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 창작성을 가미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성**과 관련되어, 이 경우에도 역시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규정에 따라 본 학술대회 동안 전송되는 콘텐츠를 사적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권리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저작권 보호 규정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께 유익한 학술적 교류와 공유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통역번역학회 배상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장소원입니다.



한국통역번역학회의 제33차 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통번역학의 성장을 견인해 온 한국통역번역학회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학술대회를 함께 축하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한국통역번역학회가 창립된 1998년은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에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아마 당시의 통번역 연구자들은 한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소통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 사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 음악, 웹툰, 게임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한국 문화가 통번역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전 세계로 활발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번역하다: 아웃바운드 번역과 지식·문화의 확산’이라는 이번 봄 학술대회의 주제는 한류 콘텐츠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아웃바운드 번역’의 역할이 커지는 현 시점에 참으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석권하고,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맨 아시아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훌륭한 번역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 문화와 지식이 해외에 전파되고 확산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아웃바운드 번역에 관한 논의가 풍성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 국립국어원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다양한 통번역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함으로써 공공용어 번역의 기준을 기초적

으로나마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 기관에서 요청하는 공공 용어의 번역과 감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11개 언어로 편찬하여 운영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을 토대로 자동 번역 등 언어문화 산업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국립국어원이 앞으로 강화하여 추진하게 될 번역 관련 정책에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뜻깊은 학문적 교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승은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곳곳으로 한국 언어문화를 번역하여 확산하는 데 애쓰고 계시는 모든 학회원 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주고받은 논의를 통하여 한류 콘텐츠 번역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6일  
국립국어원장  
장 소 원

## 중국 전통의 불교경전 번역과 그 역사적 의의

이윤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원장)

### <요지문>

번역의 이상은 원전의 의미나 문맥, 표현을 정확하게 다른 나라 언어로 옮기면서도 그 내용이 최대한 쉽고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중세 중국의 불교경전 번역시스템은 번역의 정확성과 대중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그 점에서 <번역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그 성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우고 계승할 점이 많다.

중국의 불교경전 번역시스템에서 주목되는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한 인도나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 전법승과 중국 출신 승려들이 유기적인 협업 및 소통관계를 형성해 공동으로 번역하는 체계를 발전시킨 것이다.

둘째, 번역을 주도한 고승이 승려들과 대중을 상대로 그 경전을 번역하고 그 내용을 설법하는 공개강론회와 토론장을 시설함으로써 거듭된 토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정확하고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번역문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체계를 만들었던 점이다.

셋째, 번역된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수행자나 대중들에게도 그 의미가 최대한 정확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음의류의 불교경전 전문 번역어 사전을 편찬한 것이다. 한문으로 번역된 불교경전들이 1천 5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고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당 부분이 번역어 사전 덕분이다.

<번역의 시대>로도 불리는 현대에도 번역에서 변함없이 중요한 가치는 정확성과 대중성이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교경전 번역의 전통과 성과를 창조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이 번역에 유리한 새로운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시공간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전문 번역자들이 상호 분업과 협업관계를 형성해 공동 번역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거의 실시간으로 대중들에게 번역 성과를 공개하고 소통하면서 번역의 대중성을 높일 수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또한 위키피디어나 나무위키에서 보듯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면 다수의 연구자나 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해 단기간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음의류의 사전을 편찬하고, 그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근대학문 발달의 결실이라 할 연구자들의 자율적 공동체인 학회나 연구소들을 발전시켜 왔고, 이 공동체가 공동번역 혹은 집체번역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도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번역의 정확성과 대중성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룩한 중국의 불교경전 번역의 전통을 현대의 정보통신기술과 환경들을 활용하여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불교경전 번역의 전통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그 전통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탁월한 성취의 핵심 요인은 무엇보다도 번역을 주도한 전법승 또는 중국고승과 공동번역에 참여한 불교수행승들의 불법(佛法) 전파에 대한 지극한 간절함과 초인적 끈기였다. 다시 말해 중국의 대중들에게 불법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순수하고 간절한 대비심(大悲心)과, 지극한 대원력(大願力) 곧 사명감에서 비롯되는 한결같은 끈기가 중국에는 시공을 초월하

는 탁월한 역사적 성취를 이루게 하였다. 불경의 공동번역, 집체번역이 형식적 결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호 융합하여 유기적 일체를 이룰 수 있게 만든 요인 또한 여기에 있었다.

## 1. <번역의 시대>와 소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특징짓는 키워드는 세계화와 정보화라 할 수 있다. 세계화는 IT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단기간에 상품, 자본, 노동의 국가 간 이동을 폭발적으로 확대시켰다. 경제 분야에서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그에 수반해 문화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교류와 소통이 나아가 다문화 사이의 융합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현대 사회에서는 통번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인류는 고대에서부터 공동체간 혹은 국가간 교류와 소통을 중시해 왔다. 교류를 통해 자신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존능력이라 할 공동체의 지적 능력과 자산을 높이고 증진해왔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상대의 말과 문자를 통·번역하고 상호 소통하는 것이었다. 그러했던 만큼 통·번역의 중요성은 현대사회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통·번역의 성과는 그 나라나 공동체의 명운과 흥망에 직결되었다. 전통적으로 통·번역 업무를 주관했던 계층은 국가권력의 운용에 직, 간접으로 참여하는 지배층 상층이었다. 통·번역 업무는 그 국가의 흥망이나 명운에 직결되었던 까닭에 그 정확성과 속도가 중요하였다. 그 때문에 통역이나 번역업무에 종사하는 인제는 반드시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자를 엄선하였다. 또한 번역사업은 그 중요성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후술할 중국의 불교경전 번역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공적인 영역에서 통·번역 업무의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통·번역의 필요성이나 수요층 혹은 주도층은 이전 사회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달라지고 확대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통·번역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현대사회에 이르면 거의 국민 전계층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통·번역의 수요는 공적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사적 혹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지금 국제적 문화교류는 공적 영역보다는 오히려 기업이나 개인 등 사적 영역에서 훨씬 더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아가 민간영역에서의 교류가 공적 영역에서의 교류를 견인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민간 영역에서도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융합은 마침내 생존 및 성장의 필수적인 능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번역작업은 거의 모든 방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양 또한 엄청난 규모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부정확한 번역이나 심지어 오역까지 속출하고 있다. 한 예로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이 2005년에 실시한 연구를 보면 총 572종의 번역서를 선정해 그 번역 수준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6개 평가 등급 중 상위 두 등급에 해당하는 추천본은 총 62종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도 신뢰도가 매우 높아 거의 오류를 찾아보기 힘들고 원작의 작품성을 잘 살려낸 번역본으로 최고등급을 받은 종수는 단 6종'이었다. 이 연구회가 2007년에도 동일한 연구를 수행했지만 결과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sup>1)</sup>

번역은 외국어로 쓰여진 텍스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우리말 또

1) 전성기, 2016. 『번역 인문학』 76쪽.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한 한문으로 쓰여진 텍스트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포함한다. 2000년대 이전에는 번역작업은 주로 외국어로 쓰여진 텍스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가 되면 우리말 또는 한문으로 쓰여진 우리 문화 텍스트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근년에는 한류와 K-컬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 텍스트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 또한 폭발적 증가하고 있다. 번역의 역사로 따지면 전자가 후자보다 오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 이에 비해 후자는 역사도 짧고 축적된 번역물의 양 또한 많지 않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에 비해 전문적 식견을 갖춘 엄선된 번역자들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따라서 번역물의 질적 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높은 장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많은 한계를 안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가령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지원받은 한국문학 영어번역본들에 대한 평가도 그 평가대상 가운데 ‘믿을 만한 번역서’는 36%이나 A등급의 추천본에 선정된 것은 전체의 1할에 불과하였다.<sup>2)</sup>

세계화가 확대, 심화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번역의 시대>로 불려도 아무 손색이 없을 만큼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번역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교류와 소통, 나아가 문화융합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3)</sup> 그러나 번역이 오역이 되면 그 번역은 소통을 증진시키기보다 도리어 오해와 불통을 불러오고, 융합이라는 문화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로 전락한다. 이 난제를 극복할 길을 찾는 것이 통번역학이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동양의 번역발전사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성취들을 재조명함으로써 그 과제해결에 일조하고자 한다.

## 2. 불교경전 번역시스템의 형성과 발전

중국의 불교경전 번역은 그 역사가 무려 천여 년에 이르고, 역경사업이 진행되면서 번역의 정확도와 의미전달의 완성도를 높이는 체계적인 역경시스템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 당시 번역된 불교경전은 1,500여년의 긴 세월이 흐른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교수행자나 불교학자 대부분이 신뢰하고 활용하는 기념비적인 업적이 되었다. 중국의 불교경전 역경시스템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집결하고 있어 <번역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역사적 전범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 불교가 최초로 전래된 시기는 기원후 1세기경이다. 이후 한 무제가 서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교역로 실크로드가 열리게 되었고, 이 길을 통해 다수의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불교승려들이 중국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들어왔다. 이때 전법승(傳法僧)들과 함께 불교경전도 중국에 들어왔다. 당시 경전은 산스크리트어나 중앙아시아어로 기록된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 포교를 위해서는 이를 한문으로 번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경의 번역은 기원후 2세기경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초기의 번역은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승려들이 담당했는데, 그들은 한문에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역과정에서 중국인의 도움을 받았다. 중국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경전 번역은 기원후 58~75년경에 인도 승려 가섭마등과 축법란이 낙양에서 『42장경』 등 5부를 번역한 것이다. 이어 기원후 2세기 후반 안식국에서 온 안세고와 지루가참 등이 『안반수의경』, 『십이문론』 『반주삼매경』을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이후 축법호 등 여러 승려들에 의한 역경이 이어졌는데, 4세기 후반 구자국 출신의 승려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등장하면서 역경사업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sup>4)</sup>

2) 전성기, 2016. 『번역 인문학』 76쪽.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3) 김효중, 1998. 『번역학』 11쪽. 민음사

구마라집은 중앙아시아 구자국 출신으로 아버지는 인도출신 승려 구마라염이고 어머니는 구자국 국왕의 누이동생 지바이다. 구마라집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7세 때 출가하여 소승불교를 배웠다. 장성하면서 대승불교로 전환해 『중론』 등 여러 대승경전을 배우며 연구와 수행에 매진하였는데 그 명성이 중국에 까지 널리 알려졌다. 이에 전진왕(前秦王) 부견(苻堅)은 382년 장군 여광을 파견해 구자국을 정벌하고 구마라집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장군 여광이 정벌을 마치고 귀국하는 도중 내란이 일어나 국왕 부견이 피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여광은 전진으로 돌아가지 않고 군대를 돌려 양주를 평정한 후 그 곳에서 후량국을 세웠다. 포로로 잡혀가던 구마라집도 후광에게 억류되어 이후 16~7년 동안을 가노로 부림을 당하면서 호된 고초를 겪었다. 그럼에도 구마라집은 사문으로서의 청정함을 지키려 애쓰는 한편 중국어를 배워 한문을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던 중 후진의 왕 요흥이 401년 군대를 보내 후량을 정벌하고 노예로 고초를 겪던 구마라집을 모셔온다. 요흥은 구마라집을 국사로 임명하고 극진히 우대하면서 불교 경전 번역을 주관하게 하였다. 중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했던 구마라집은 이후 12년 동안 대품반야경·법화경·금강경·대지도론·성실론·중론 등등 35종 294권의 대승불교경전을 번역하였다.<sup>5)</sup>

구마라집의 불교경전의 번역은 이전의 번역과는 뚜렷이 구분될 정도로 그 정확성이나 완성도가 높았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구마라집이 한문에 능통하여 산스크리트어 경전의 본래 뜻을 살리면서도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의역(意譯)을 하였고, 또한 이전과는 달리 불교경전 번역에 승예(僧叡)와 승조(僧肇) 등 당대에 뛰어난 승려들과 수백, 수천의 대중을 동참시켜 대중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는 번역작업을 진행하면서 번역문을 놓고 당대에 뛰어난 승려 및 다양한 대중들과 토론을 이어갔다. 기록에 따르면 그 토론에는 종종 황제도 참여하여 질문하고 토론하였다. 구마라집은 이를 통해 대중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수용하면서 의미가 보다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문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였다. 그 과정이 모두가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경전번역을 완료하였다.<sup>6)</sup> 그런 까닭에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은 이후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쉽게 수용되었다. 당시 번역한 경전들은 이후 다른 승려들에 의해 보다 원전에 충실한 형태로 중역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중들은 중역된 경전보다도 구마라집의 번역을 더 신뢰하고 애호하였다.

구마라집 역경사업을 계기로 이후 중국의 불교경전 번역사업은 국가와 왕실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체계화된 집체번역 시스템으로 발전해 갔다. 그 시스템은 경전 본래의 의미를 충실히 살리도록 최대한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고 동시에 언어체계가 다른 중국 대중들에게 그 경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도록 대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체계화되었던 중국의 불교경전 번역시스템의 개관과 핵심 직책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sup>7)</sup>

#### (1) 역주(譯主)

번역사업 전반을 주관하는 최고의 지위로 주로 삼장(三藏)에 정통한 고승(高僧)들이 임명되었다. 수·당(隨·唐)대 이전에는 주로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승들이 역주에 임명되었고, 그 이후 시기에는 중국 승려 가운데서도 역주를 임명하였다. 역주는 번역할 경전을 선정하고,

4) 陳福康, 2020. 『중국역학사』(김태관 역) 42쪽. 신아사

5) 釋慧, 『高僧傳』 卷二. 鳩摩羅什

6) 강경구, 2016. 「중국불교 역경시스템과 현대적 적용」 『불교평론』 65

7) 이하 중국의 불교경전 역경시스템에 대해서는 강경구, 앞의 논문(2016) 참조.

각 경전을 번역 구술하였고, 또한 경전 내용에 대해 설법했다.

역주는 불교경전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먼저 번역할 경전을 선정한다. 이때 역주는 최초의 작업으로 번역할 경전의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완전한지를 점검하였다. 이 작업을 담당하는 것은 대부분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승려들이었다. 그 직책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2) 증범본(證梵本)

불법에 대한 깨달음과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역경의 텍스트가 되는 산스크리트어 원본에 내용이나 서술에서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직책이다.

(3) 독범본(讀梵本)

증범본과 같이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함께 읽으며 원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직책이었다.

(4) 증범문(證梵文)

증문(證文)으로도 부르며 하며 산스크리트어 원본 문장에 오류가 없는지를 살피는 직책이다.

(5) 증범의(證梵義)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할 경우 산스크리트어의 의미가 손상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직책이다.

이렇게 하여 번역할 산스크리트어 경전 텍스트가 확정되면 다음으로 역주는 역장을 열어 대중들을 상대로 이를 구술로 번역하고 설법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역주가 구술한 것을 채록하여 초벌번역문이 만들어지면, 역주는 이를 놓고 승려 및 대중들과 토론한 후 수정하여 번역문을 완성한다. 그 과정을 채록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도어(度語)와 필수(筆手), 철문(綴文), 그리고 참여한 대중들이 담당하였다. 그 과정을 거쳐 초벌 번역문이 완성된다. 이후의 과정은 이 번역문을 수정, 보완하고 운문하여 한역경전을 완성하는 작업이므로 경전 번역에서는 이 단계까지의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까닭에 모든 한역불교경전은 역주의 이름을 번역자의 명의로 쓴다. 역주가 담당하는 이상의 과정을 담당하는 직책은 아래와 같다.

(6) 도어(度語)

역주(譯主)의 경전 해석을 한어(漢語)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직책이다.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서역 출신의 승려가 역주를 맡을 경우 통역을 담당했다. 물론 구마라집이나 현장, 의정과 같이 역주 자신이 한어에 능통하면 별도로 도어를 두지 않고 스스로 도어를 검했다.

(7) 필수(筆手)

역주(譯主)가 중국어로 구술하거나, 도어가 옮긴 말을 충실히 기록하는 역할이다. 필수는 철문(綴文)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법에 따라서는 필수가 역주가 구술한 내용을 단순히 기록하는 역할을 넘어 중국어 어법에 맞게 번역하는 역할도 맡았다.

(8) 철문(綴文)

필수가 역주의 구술을 채록한 거친 번역문을 다시 자연스러운 한문 문장으로 전환하는 직책이다. 불교경전 번역은 그 처음 작업이 산스크리트어 원본의 기술을 따라가며 번역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초고에는 인도식 어순이 많이 포함되어 중국어 표현으로 보면 어색함이 많았다. 철문은 경전이 담고 있는 본래 의미를 살리면서도 이를 중국어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재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물론 이러한 역경방식은 후대로 내려가면 달라진다. 우선 역주(譯主)가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승이 아니라 인도로 유학을 다녀온 중국인 승려로 바뀐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당의 현장(玄奘)이다. 역주가 중국출신 승려로 바뀌면서 역장(譯場)의 운영 또한 크게 달라진다. 구마라집 이래로 이어져오던 번역에 대중을 참여시키던 방식 대신 역주가 전국에서 선발한 소수 정예인원들로 전문 번역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상대로 번역 구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역장을 운영한 대표적인 역주가 당의 현장이다. 또한 역경이 특수 분야로 한정될 경우 그 분야에 정통한 승려에게 역주를 맡겼다. 가령 역경이 유식학 경전 번역으로 전문화될 경우 유식학에 정통한 승려가 역주로 임명되었다.

다음으로 초벌 번역이 완료되면 그 다음은 보다 정치하게 산스크리트어 원본과 중국어 번역본을 일일이 대조하며 번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번역문이 경전 본래의 의미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문장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그 작업을 주관하는 핵심 직책은 증의(證義)이고 관련 직책은 아래와 같다.

#### (9) 증역(證譯)

산스크리트 원본과 중국어 번역본을 대조하며 검증하는 직책이었다.

#### (10) 참역(參譯)

산스크리트어 원본과 번역문을 대조하면서 교정하는 직책이다.

#### (11) 교감(校勘)

여러 자료와 대조하여 번역문의 오류를 수정하는 직책이다. 시기적으로는 산스크리트어 원본 확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 초기에 주로 설치되었고, 현대에는 점차 그럴 필요가 없어져 설치되지 않았다.

#### (12) 정자(正字)

자학(字學)에 밝은 학자가 맡았으며, 역주(譯主)나 증의(證義)가 겸하기도 했다.

#### (13) 증선의(證禪義)

자신의 깨달음과 수행에 기초하여 중국어 번역문이 불법의 도리를 오류 없이 전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직책이다.

#### (14) 증의(證義)

중국어로 번역된 문장에 대해 교리적으로 점검하고 역주(譯主)와 토론한다. 주로 번역문장이 원문의 뜻에 부합하는지, 불법의 이치에 모순되지 않는지를 점검하였다. 증의는 번역 현장에서는 필수적인 직책으로 역주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초벌번역문의 내용 검증이 완료되면 다음은 그것을 중국식 문법과 문체로 수정하고 원전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문장 길이를 조정하고 운문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그렇게 다시 중국어 번역문이 완성되면 다시 이를 원전과 대조하면서 번역문이 원전과 최대한 내용과 의미가 일치하도록 교정, 교열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는 원전에 실려 있는 운율이 번역문에서도 살아 있는지를 점검한다. 불교경전의 중국어 번역은 운문작업을 끝으로 완료된다. 이 단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운문이며 관련 직책은 아래와 같다.

#### (15) 간정(判定)



번역문을 검토하여 그 구절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불필요하게 긴 문장을 잘라내거나 교정하는 직책이다. 이 직책은 송대 역경작업에 이르러서야 개설되었다.

#### (16) 운문(潤文)

필수와 철문이 작업한 번역문에 대해 원래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식하고 다듬는 역할이다. 내외 학문에 박식 통달하고 문장이 뛰어난 학자들이 이 직책을 담당하였다. 운문은 역주, 증의와 함께 역경작업에 가장 핵심적인 직책이었다.

#### (17) 범패(梵唄)

산스크리트어 경전은 악기 반주와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운율을 담고 있었다. 범패는 번역문 또한 낭송하기에 적당한 음율을 가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직책이다.

이상의 전 과정을 요약하면 경전 번역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의 작업으로 진행된다. 첫째 단계는 역주가 번역할 경전을 선정하고 산스크리트어 원본을 확정하는 다음, 역장을 열어 번역을 구술하고 설법하여 초벌 번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번역작업 전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둘째 단계는 초벌 번역문을 산스크리트 원전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번역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중국의 번역문의 내용이나 의미가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다. 이 단계 작업을 책임지는 주요한 직책은 증의이다. 셋째 단계는 경전 본래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어 번역문이 대중에서 가장 잘 수용될 있도록 문장을 수정하거나 구절 길이를 조정하고 운문하는 작업이다. 이 단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은 운문이다.

이상의 번역작업은 다수의 전문 인력과 대중이 참여하고, 작업기간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역경사업에는 막대한 재정과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였다. 역경사업을 추진한 역대 왕조의 황제들은 감호대사를 두어 그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 (18) 감호대사(監護大使)

황제의 명을 받아 역경을 감독하고 위호하는 직책이었다. 감호대사는 황제를 대신해 역경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감역(監譯), 감열(監閱)로도 불렸다. 승려가 맡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역경사업에 필요한 이상의 18개의 직책이 역경 초기부터 전부 설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비교적 주요 직책 위주로 설치했다가 후대로 갈수록 기능이 분화되었는데 당(唐)의 현장(玄奘)이 역장(譯場)을 개설할 즈음에는 대부분의 직책이 개설되어 기능하였다.<sup>8)</sup> 이상에서 보았듯이 중국의 불교경전 번역은 전문적으로 분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집단 작업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경전번역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그 수용력과 대중성을 극대화하였다. 그렇게 번역된 한문불교경전은 출간되지 천여 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정평을 얻고 있다. 심지어 산스크리트어 경전 원본이 실전된 경우에 한역 경전에 의거해 역으로 그 내용을 거의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이다. 불교가 일어난 인도에서의 경전 연구 못지않게 중국과 동아시아에서도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불법 연구와 저술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역경사업 덕분이라 할 수 있다.

### 3. 불교경전 번역어 사전의 편찬

8) 진복강, 2020. 『중국역학사』(김태관 역) 67쪽. 신아사

중국의 불교경전 번역 사업은 산스크리트어나 중앙아시아어 원전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당대 중국 대중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수용될 수 있도록 번역하는 데 주안을 두었고, 이를 위해 인도나 중앙아시아 출신 승려와 중국 승려 및 대중들이 나누어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공동으로 번역작업에 참여하는 합리적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그러한 집체적 번역시스템에서 완성된 한역경전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정확하고 수용성 높은 최상의 번역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역 불교경전 또한 모든 번역물이 근원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그것은 독자가 번역된 텍스트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차다. 달리 말하면 번역자가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을 독자가 동일한 관점과 내용으로 수용하지 못하며, 번역된 경전 이해에서 양자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간극과 괴리가 발생하는 모순이다. 문장이나 문맥에 대한 이해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번역자와 독자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활동하고, 양자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클수록 이러한 괴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사람의 사유나 행동과 동일하게 말 또한 사회변동에 따라 그 의미나 표현방식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번역과정 자체에서도 독자가 오해할 요인이 많이 생겨난다. 번역 주체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역경사업의 기간이 길고 번역하는 경의 수가 많아지면 번역된 경전 사이에도 적지 않은 편차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편차를 일거에 해결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편차는 독자에게는 자칫 오해와 곡해의 소지가 된다. 더구나 번역자가 다르고, 번역 시기나 조건이 다르면 동일 개념어의 중국어 번역이 상이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된 경전을 읽는 독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심지어 경전의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산스크리트어 경전에는 중국어로 번역할 수 없는 용어나 구절들이 있다. 고유명사인 명호나 지명, 가령 ‘니르바나’ ‘타타아가타’ ‘보디살다’ 등과 같이 정확히 그 개념을 대체할 용어를 중국어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용어, 그리고 본래 음으로 정확히 발음해야만 그 의미와 효능이 살아나는 다라니 등이 그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번역된 경전에는 음사어(音寫語)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의미를 정확히 번역하는 것 못지않게 산스크리트어 발음에 최대한 일치하게 음사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경전 본래의 의미와 효능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

불교경전을 번역했거나 한역경전을 일상적으로 수행과 연구에 활용하였던 승려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했다. 불교수행자들에게 불교경전은 인생 최고의 일대사 곧 지혜를 밝히고 열반을 성취하는 공부의 소중한 텍스트이자 수행 지침서였다. 그런 까닭에 번역의 문제로 경전 이해나 활용에 오류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오류는 자칫 수행자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경전이 유통될 때 그러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음을 인지한 승려들은 이 괴리와 모순을 해결할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불교경전 번역어 사전이었다.

최초의 불교경전 번역어 사전은 644년 당나라 때 현응(玄應)이 편찬한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이다.<sup>9)</sup> 이 책은 『화엄경(華嚴經)』에서 『순정리론(順正理論)』에 이르는 불경(佛經) 458종 2,200권에 수록된 어휘를 경전별로 선택해 산스크리트어(梵語)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난해한 자구(字句)의 음과 뜻을 풀이한 최초의 불교경전 번역어 사전이다. 이 사전은 후술할 혜림의 『일체경음의』와 이름이 같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기 위해 『현응음의』로 부른다.

9) 신원철, 2021. 「혜림《일체경음의》의 한국 전파와 중국의 재유입」 『중국문학』108집.

『현응음어』는 총 25권으로 편찬되었다. 제 1권부터 제20권까지는 당나라 현장 이전에 번역된 경전 456종의 불경 내용을 대승과 소승으로 나누고, 다시 경·율·논·전기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추출한 산스크리트어 용어의 음차자의 음과 뜻을 번역해서 적고, 난해한 자구에 대해 뜻을 풀이하고 용례를 정리하였다. 제21권부터 제25권까지는 현장 스님이 번역한 대승 경전 13종과 대승 논서 11종, 소승 논서 2종을 실고 있다. 『현응음의』는 각 지방마다 다르게 읽는 글자나 용어까지 상세히 설명을 덧붙이고, 경전의 원문에 있는 오자(誤字)를 바로잡는 등 매우 엄밀하고 정확히 해석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불경의 용례에만 한정해 단어를 해석하지 않고, 『춘추(春秋)』, 『논어(論語)』, 『맹자(孟子)』, 『상서(尙書)』 등 중국경전을 참조해 번역어의 정확한 뜻을 밝히고 있다. 『현응음의』가 나오고 난 뒤 699년 혜원(慧苑)이 『신역대방광불화엄경음의(新譯大方廣佛華嚴經音義)』 2권을 편찬하였다. 이 음의는 실차난타가 번역한 방대한 『80화엄』을 정확히 읽고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주석서 곧 번역어 사전이었다.<sup>10)</sup>

『현응음의』에 필적할만한 불교용어 번역어사전은 이 보다 150여년 뒤인 807년에 편찬된 당나라 혜림(慧琳)의 『일체경음의』이다. 이를 『현응음의』와 구분하기 위해 『혜림음의』로 부른다. 혜림은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소록국 출신의 승려로 성은 이 나라의 왕족과 같은 배씨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유학을 공부하였고, 약관의 나이에 불교삼장을 문하로 출가하여 총지문 밀교수행에 정진하였다. 그는 이후 당나라로 들어와 총지문 계열의 대흥선사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는데 산스크리트어와 중국어에 능통하고 자학에 해박하여 이름이 났다.<sup>11)</sup> 당 태종 말년 현장은 대규모 불교경전 번역사업을 주도하면서 그를 역경사업에 참여시켰다. 불교경전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언어의 성음(聲音)과 자학(字學)에 정통한 승려가 필요했고, 이에 혜림을 발탁해 흥복사에 머물게 하면서 역경작업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혜림은 역경사업에 참여하면서 편찬된 지 150여년이 지난 『현응음의』를 증보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20여 년간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혜림음의』를 완성하였다. 『혜림음의』는 『현응음의』와 편찬방식이 동일하고 『현응음의』에 수록된 내용은 물론이고 그 뒤 편찬된 혜원의 화엄음의를 비롯한 관련 연구를 망라하고 그 이후에 번역된 불교경전 번역어까지 보완하였다. 『혜림음의』가 포괄한 불교경전은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부터 호명방생법(護命放生法)에 이르기까지 무려 1천2백55종 5천7백여 권에 이르며 그 가운데서 3만 6천여 개의 용어들을 선별해 그 발음과 의미를 밝히고 주석까지 붙여 총 100권으로 편찬하였다. 불교경전 번역어사전으로는 실로 방대하고 당대까지의 성과를 집대성한 독보적인 업적이었다.

『일체경음의』는 중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중국으로부터 한역경전을 수입해 간 요, 고려,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불교경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디딤돌이 되었다. 혜림의 『일체경음의』가 동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된 과정을 소개하면 먼저 북송에서 『혜림음의』를 포함하는 중국의 『대장경』 간행이 이루어진다. 이 대장경의 간행은 북송 개보 4년(971년)에 시작되어 태평흥국 8년(983년)에 완료되는데 이를 『개보대장경』이라 부른다. 『개보대장경』은 거란과 고려에 전해졌고, 이를 저본으로 다시 판각한 거란(요)의 『거란대장경』과 고

10) 동국대학교 역경원 편, 1975. 『高麗大藏經』 제32. 동국대학교출판부.

11) 동국대학교 역경원 편, 1975. 『高麗大藏經』 제42. 동국대학교출판부.

『一切經音義』序 (試太常寺奉禮郎景審述)

有大興善寺慧琳法師者。姓裴氏。疎勒國人也。則大廣智不空三藏之弟子矣。內精密教。入於總持之門。外究墨流。研乎文字之粹。印度聲明之妙。支那音韻之精。既瓶受於先師。亦泉瀉於後學。鞞譯迴綴。參於上首。師掇其闕遺。歎其病惑。覽茲群經。纂彼詰訓。……師二十餘載。傍求典籍。備討經論。孜孜不倦。修緝為務。以建中末年。初製。至元和二祀。方就。凡一百軸。具釋眾經。始於大般若。終於護命法。總一千三百部。五千七百餘卷。舊兩家音義合而次之。

려의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진다. 거란에서는 흥종 중의 연간(1032~1054)에 조성을 시작하여 도종 청녕 5년(1059) 이전에 조조를 마치고, 함용 연간(1065~1074)에 579질에 달하는 『거란대장경』을 간행하였다. 고려에서는 거란보다 다소 앞선 시기인 고려 현종 2년(1011)에 대장경 조성을 시작했지만 간행 완료시기는 거란보다 다소 늦은 선종 4년(1087)이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보다 앞서 대장경을 간행한 거란은 몇 차례 『거란대장경』을 고려에 보내온다.

『거란대장경』에는 『혜림음의』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요나라 승려 희린이 편찬한 『속일체경음의』도 포함되었다. 말과 문자가 중국과도 다른 거란에서 불교경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혜림음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희린이 이를 보완하는 독자적인 『음의』 곧 번역어사전을 편찬한 것이다.

고려의 『초조대장경』에도 당연히 『혜림음의』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송고승전』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에서 『개보대장경』이 조성되기 전인 후주 현덕(954~960) 년간에 이미 고려에서 온 사신이 『혜림음의』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몽골 침입을 받아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 물론 인쇄된 『초조대장경』 일부가 국내외에 잔존하지만 아직까지 『혜림음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고려는 『초조대장경』을 처음에는 개경 흥왕사에 봉안하였지만 몽골의 침입을 받아 대구 부인사로 옮겼는데 1232년 몽골군이 남하해 이를 불태워 버렸다.

고려는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즉각 다시 대장경 판각을 추진하였다. 고려 고종은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그 직후인 1236년 다시 대장경 조성을 시작해 1251년에 완성하였다. 고려가 대장경 조성을 서둘렀던 이유는 부처의 힘에 의지해 몽골군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였다. 이 때 다시 조성된 대장경을 『재조대장경』으로 부른다. 『재조대장경』은 최초에는 강화성 서문 밖에 위치한 대장경판당에 보관하였다가 이후 선원사로 옮겼다. 그 후 조선 태조 7년 다시 합천 해인사에 옮겼고, 이후 현재까지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되고 있다.<sup>12)</sup>

『재조대장경』에는 『혜림음의』는 물론이고 이후 요 나라에서 희린이 편찬한 『속음의』 등 현재 확인 가능한 음의류 자료 거의 전부가 수록되어 있다.<sup>13)</sup> 이러한 사실은 고려 불교계가 한역된 불교경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음의류의 번역어 사전을 적극 활용하였음을 보여준다.

#### 4. 불교경전 번역 전통의 현대적 계승

번역의 이상은 원전의 의미나 문맥, 표현을 정확하게 다른 나라 언어로 옮기면서도 그 내용이 최대한 쉽고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번역의 정확성과 대중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번역자에게는 최고의 목표이자 동시에 최대의 난제이기도 하다. 중국의 불교경전 번역시스템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그 점에서 그 성과는 <번역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배우고 계승할 점이 많이 함축하고 있다.

중국의 불교경전 번역시스템에서 주목되는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한 인도나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 전법승과 중국 출신 승려들이 유기적인 협업 및 소통관계를

12) 張愛順 외, 2006. 『高麗大藏經의 研究』, 동국대출판부.

13) 고려의 『재조대장경』(현 팔만대장경)에는 혜림의 『일체경음의』와 요나라 승려 희린의 『속일체경음의』 외에도 『법원주림』, 『내전수함음소』 등 다른 대장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음의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형성해 공동으로 번역하는 체계를 발전시킨 것이다. 물론 번역작업에 참여한 전법승과 중국 승려들은 모두 산스크리트어와 중국어에 능통하였다. 그러나 모국어에 능통한 것과 외국어에 능통한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상호 이 점을 인정하여 번역이 최대한 원전과 합치하도록 작업을 분화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소통, 협력함으로써 번역의 정확성을 높이는 공동번역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이다.

둘째, 번역을 주도한 역주(譯主)가 승려들과 대중을 상대로 그 경전을 번역하고 그 내용을 설법하는 공개강론회와 토론장을 번역작업의 필수과정으로 시설함으로써 거둬진 토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정확하고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번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체계를 만들었던 점이다.

셋째, 번역 현장과 시공간을 달리하여 번역된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수행자나 대중들에게도 그 의미가 최대한 정확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음의류(音義類)의 불교경전 전문 번역어 사전을 편찬한 것이다. 번역어 사전을 편찬한 주체는 해림과 같이 두 나라 언어의 성음(聲音)과 자학(字學)에 정통하고 불교경전과 중국 고전에 해박한 승려들로 번역작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였거나 간행에 관여하였던 이들이었다. 한문으로 번역된 불교경전들이 1천 5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고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당 부분이 번역어 사전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번역의 시대>로도 불리는 현대에서 이제 번역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유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문화를 창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고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다. 예나 지금이나 번역에서 중요한 가치는 정확성과 대중성이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불교경전 번역의 전통과 성과를 창조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번역 환경과 조건이 크게 달라졌다. 과거의 불교경전 번역과 간행은 중국, 거란, 조선, 일본 할 것 없이 당대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왕실이 주도하였고, 장기간 역경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경비와 업무를 국가 재정과 행정기관에서 지원하였다. 말하자면 과거의 역경사업은 왕실의 최고 치적이 되는 국가 중대사였고, 왕실의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결집해 긴 세월에도 그 빛이 바래지 않는 최상의 업적을 생산해 냈던 것이다.<sup>14)</sup> 현대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작업환경이나 조건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현대에도 과거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만큼 번역에 유리한 조건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전문 번역자들이 상호 분업과 협업관계를 형성해 공동 번역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거의 실시간으로 대중들에게 번역 성과를 공개하고 소통하면서 번역의 대중성을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형성되었다. 또한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에서 보듯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면 다수의 연구자나 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해 단기간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음의류의 사전을 편찬하고, 그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현대 사회에서는 번역작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어렵지 않게 학회나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고, 그 학술모임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공학술지원기관이나 공공단체나 공기업 혹은 사기업 또는 독지가들로부터 연구비나 학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 한 예로 니체서거 100주년 기념으로 니체전공자들이 전집번역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서출판 책세상의 지원으로 니체집 정본으로 정평있는 독일 발터 데 그루이터사의 『니체비평전집』 판본을 5년에 걸쳐 21권으로 완역하여 출간한 것이 그것이다.

14) 강경구, 앞의 논문(2016)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현대의 번역에 유리한 새로운 기술과 조건들을 활용하여 번역의 정확성과 대중성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룩한 중국의 불교경전 번역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물론 전통시대 중국 불교경전 번역사업이 탁월한 성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왕실 또는 국가의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문화적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그 지원만으로 번역사업의 탁월한 성취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시대를 초월하는 탁월한 성취의 핵심 요인은 무엇보다도 역주가 된 전법승 또는 중국고승과 공동번역에 참여한 불교수행승들의 불법(佛法) 전파에 대한 지극한 간절함과 초인적 끈기였다. 다시 말해 중국의 대중들에게 불법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순수하고 간절한 대비심(大悲心)과, 지극한 대원력(大願力) 곧 사명감에서 비롯되는 한결같은 끈기가 중국에는 시공을 초월하는 탁월한 역사적 성취를 이루게 하였다. 공동번역, 집체번역이 형식적 결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호 융합하여 유기적 일체를 이룰 수 있게 만든 요인 또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동양 전통의 불교번역의 역사적 성과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한다면 특히 눈여겨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 여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 세계출판시장에서의 번역가의 역할과 그 가치

글 이구용, KL매니지먼트 대표

인간은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 신의 뜻을 접하고 이해한다. 그리고 문자나 기호를 통해 우주의 진리나 섭리를 터득하고 이해하곤 한다. 그런데 말과 언어가 다른 경계 너머에 있는 대상에게 오리지널이 입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나 기호가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 혹은 한쪽의 기호나 문자를 이해하고 그렇지 못한 대상에게 전하는 메신저의 표현과 언어가 최초 오리지널이 지닌 의미를 완벽하게 전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가끔 오해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신저의 역할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용한 수단이 되어오고 있다.

번역이 꼭 그와 사정이 비슷하다는 생각이다. 그간 번역과정이 없었다면 인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성서, 경전, 신화,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된 문학 오리지널이 번역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온 인류가 각자 지닌 텍스트를 공유할 수 있었다. 그만큼 번역은 오리지널 창작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과정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번역은 물론 그 중심에 선 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해를 거듭할수록 글로벌 산업현장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꾸준한 활약과 지속적인 호응, 영화 <기생충(Parasite)>을 통한 한국 영화와 감독의 위상 격상,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를 통해 거둔 성과,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이 드라마가 소환해내고 있는 다양한 한국문화에 대한 글로벌 문화 소비자들의 공유는 한국 소프트파워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다.

한국 대중문화의 가치는 영역을 넓혀가고, 세계 불특정 다수의 대중은 일상 속에서의 한국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문화 소비 기회와 공간의 확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글로벌 환경에서 멀티유즈의 원천이 되는 한국의 원작(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와 확대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는 한국출판이 다양한 언어권에서 번

역 출간되는 전통적 패턴을 넘어 한국출판콘텐츠를 원작으로 하는 다양한 부가  
판권(sub-rights) 활용사례 증가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특히 영미유럽 출판시장에서 한국문학을 비롯한  
한국출판물이 번역 출간되어 현지 대중 독자들과 일상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이  
례적인 풍경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미유럽을 포함한 세계 출판시장에서 한  
국문화는 여전히 낯설고, 특히 서점가에서 번역 출간된 한국문학을 포함한 한국  
의 다양한 출판콘텐츠에 대한 일상적 만남은 더욱 낯설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2010년을 지나면서 한국문화와 한국문학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는 빠른  
속도로 부상했고, 그 성과는 글로벌 출판시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여러  
한국 작가가 연이어 세계적으로 저명한 문학상을 수상하고, 다양한 언어권의 출  
판시장에서 한국문학을 비롯한 한국출판콘텐츠가 상업적 성과를 이끌어 내오고  
있는 것이다. 독특하고 신선한 감각이 깃든 소재에 진지한 주제의 자연스런 아  
울림, 그리고 거기서 공감되는 예술적 완성도와의 조화는 한국출판콘텐츠가 글  
로벌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매력 포인트이다. 글로벌 무대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다.

2011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m)>가 뉴욕타임스 베스  
트셀러에 오르고, 이 작품을 통해 저자와 역자 김지영은 맨아시아문학상(Man  
Asian Literary Prize)을 수상했다. 2016년,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는 저자  
한강과 역자 데보라 스미스에게 맨부커인터내셔널 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의 영예를 안겼다. 그리고 2017년, <홀(The Hole)>은 저자 편혜영과 역자  
소라김 러셀에서 셠리잭슨상(The Shirley Jackson Award)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2021년, <밤의 여행자들(The Disaster Tourist)>는 저자 윤고은과 역자 리지 부엘  
러에게 영국 추리작가협회가 수여하는 대거상의 영예를 안겼다.

최근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정보라와 박상영의 소설이 맨부커인터내셔널상 후보  
(Longlist)에 오르며 각각의 저자와 역자 안톤 허에게 큰 보람과 함께 더 큰 기대  
를 안기고 있다. 손원평의 <아몬드>는 일본에서 2020년 일본 서점대상(번역문학  
부문)에서 1위에 올라 한국작로서는 물론이고 아시아작가로서도 최초로 그 상의  
영예를 안았고, 폴란드에서는 ‘2021 올해의 책’에 올라 저자와 역자 모두에게  
큰 영광을 안겼다. 이 외에도 수많은 한국문학작품이 각 언어권에서 번역, 출간  
되어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 내오고 있다.



한편, 지난 수년 간, 한국문학을 원작으로 한 TV드라마, 영화, 그리고 공연(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 등의 판권수출이 진행되면서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출판콘텐츠의 이용과 그 역할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와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I' ll Be Right There)>, 서미애의 <잘 자요, 엄마(The Only Child)>, 김언수의 <설계자들(The Plotters)>, 그리고 편혜영의 <홀> 등의 영미권으로의 영상판권 진출 예는 일부 사례이다. 규모와 관계없이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은 뮤지컬로 미국에서 공연된 바 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많은 한국 문학작품들이 각 언어권에서 번역 출간되고, 이어 영상 및 공연 판권까지 여러 언어권 무대로 진출되어 새로운 콘텐츠로의 제작을 앞두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근년 들어 해외로부터 원작에 대한 영상, 혹은 공연판권 구매를 위한 관심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가 국가, 혹은 언어권 구분 없이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 제작되어 상품화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만큼 번역가의 역할과 그 영역은 원작번역은 물론이고, 필름/ 드라마 등의 영상과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과 같은 공연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영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글로벌 문화 현장의 중심에서는 영역을 막론하고 오리지널 텍스트, 나아가 멀티유즈를 위한 산업현장에 번역가가 어김없이 존재하여 역할해 오고 있다. 학술, 예술, 그리고 산업현장 어디서든 번역가의 역할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 번역가, 에이전트, 그리고 편집자 등이 일상적으로 긴밀히 소통하여, 한국 문학(문화)콘텐츠는 해외로 더욱 활발히 진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해외 다양한 언어권으로부터 국내로 도입되는 타이틀들 또한 활발히 번역출판된다면 전세계 독자들에게는 지금보다 더욱 풍성한 시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KSCI Conference “Translating Korea”

“Generals, Tigers and Princesses: Translating Folk and Fairy Tales in  
North and South Korea”

## 2. Starting Points

- “The writing of books for children is an underestimated art, and the translation of books for children doubly so.”
- “Indeed, the boundaries between children’s and adult literature are fluid and regularly breached by both adults and children. .”
- “Some of the best-known international children’s classics began their existence either as oral tales for all ages or as texts for adult readers and therefore include adult themes and preoccupations.”
- (Lathey, 2016: 1)

### 3. Narrative Communication with the Child Reader

- “Children’s authors . . . Often write for a second, adult reader”
- (Lathey, 2016: 39)

## 4. Meeting the Unknown

- “What, then, is the role of the translator in easing the transition between cultures?”
- “It is therefore well worth taking the time to research the precise kind of sweet, candy or dessert cited in the source text and seeking either an equivalent, or an alternative that is equally evocative for readers of the translation.”
- (Lathey, 2016: 39, 41)

## 5. Translating the Visual

- “The effect of artwork in children’s books may last a lifetime . . .”
- “When translating a modern picture book, take into account the harmony or counterpoint between text and image . . .”
- (Lathey, 2016: 56, 60)

## 6. Retellings

- “Any translator of fairy tales has to discuss with the editor or publisher what kind of translation is to be undertaken . . .”
- (Lathey, 2016: 119)

# 7. Cultural Studies

- “Research methodology on the development of picture books can be adopted from cultural studies.”
- “The focus in general is on the producers, the background of its production, responsiveness of consumers, users or viewers, and reasons for its popularity and appearance.”
- (Ko, 2014:65)



# 8. Development of Translated Picture Books in Korea

- “Choosing picture books for translation could be seen as part of a process for producing cultural goods and, as such, necessarily reflects the needs and aesthetics of the society at that time.”
- “Picture books are also closely related to educational policy, as the primary readers are children and their parents.”
- (Ko, 2014: 66)

# 9. Views on the Principles of Picture Book Translation

- “Should translated picture books remain faithful to the source culture text?”
- Or should translated picture books be acceptable to the target culture readers?”
- “It is envisaged that reviewing the way picture books have been translated will deepen our understanding about the dynamics of a society and those educational as well as commercial products called books.”
- (Ko, 2014:66)

# 10. The Globalization of Picture Books

- “Globalization for the South Korean book industry started with the appearance of Korean picture books in the international book market from the late 1990s and with the growing prominence in the 2000s.”
- “At least 27 countries now import children’s books, including picture books, from South Korea according to statistics published in 2008.”
- (Ko, 2014: 73)

# 11. North Korean Artistic Federation

- “In 1946, the North Korean Artistic Federation . . . was formed and this became the foundation for literary and artistic policy.”
- “*Adong Munhak (Children’s Literature)* was a monthly magazine published by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hoson Writers’ Union.”
- (Hyun, 2015: 27)

## 12. I Won-U's *Writing Children's Literature*

- “I Won-U’s 1956 volume, *Writing Children’s Literature* provided detailed guidelines for those wishing to enter this field.”
- “In his view, proletarian literature suggested ways for children and adults to live together in society.”
- “Second, writers of children’s literature should quote foreign authors in order to justify their own points of view.”
- (Hyun,2015: 28)

## 12. Translations in *Adong Munhak* : Paek Sok

- “The writer and poet Paek Sok’s ideas on children’s literature were based on the concepts of socialist realism.”
- “. . . Paek Sok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iterary qualities, claiming that it was more important to emphasize the role of children in link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ultural history than to focus exclusively on socialist thought.”
- “Although Paek Sok’s 1958 publications in *Adong Munhak* reflect socialist ideology, the following year he was exiled from Pyongyang.”
- (Hyun, 2015: 28-29)

# 14. Translations in *Adong Munhak*: The Brothers Grimm

- “In an *Adong Munhak* article in July 1962, entitled “Introduction to the Brothers Grimm” Ch’oe Tong-Hyop comments that the two Grimm brothers wanted to make the German people aware of their good qualities by searching for interesting stories from their traditions.”
- “Thus by translating Grimm’s tales, the North Korean translators were suggesting the goodness and diligence of their own people.”
- “The problem of good and evil also suggests the conflict between the bourgeois and proletarian classes.”
- (Hyun, 2015: 29-30)

## 15. Translations in *Adong Munhak: Edmondo De Amicis*

- “The North Korean translators seem to have felt that the national situation in Italy at the time De Amicis was writing was similar to that of their own country.”
- “The North Korean translation of “The Young Soldier Scout of Rambadi” emphasizes the tragic and revolutionary aspect of the youth facing death . . .”
- (Hyun, 2015: 31)



## 16. Translations in *Adong Munhak: Aesop and La Fontaine*

- “I Won-U lists fables as one of the principal genres of children’s literature . . .”
- “Paek Sok wrote that Aesop detested the oppression of the weak by the strong . . .”
- An article in *Adong Munhak* claims: “La Fontaine criticizes the powerful within his society . . .At the same time he has warm sympathy for workers.”
- (Hyun, 2015: 31)

## 17. *Korean Stories for Language Learners*

- “밤에게 절을 한 호랑이 / Bam-ege Jeol-eul Han Holang-I”
- “The Tiger Who Bowed to the Chestnut / This story is about a poor tiger who was scared of a hedgehog.”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Imgeumnim Gwineun Dangnagwi Gwi”
- “The King has Donkey’s Ears / This story is about a king’s ears and the mysterious happening related to them.”
- (Damron and You, 2018: 14, 176-177)

## 18. *Korean Children's Favorite Stories, Fables, Myths and Fairy Tales*

- These stories were first heard in my childhood in Korea. I hope they will use their magic powers to rise above all language barriers and speak directly to the hearts of all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eight and eighty in other lands.”
- (Kim So-un, 2019: 5)

## 19. *Folk Tales From Korea*

- “Folk tales, and the oral literature of the people, provide valuable material for the student of Korean literature, but they are also indispensable for those who wish to know and understand Korean culture, history, religion, philosophy, and even politics and economics.”
- (Jeong, 2005: 9)

## 20. *Arang and Yari*

- “No, I can’t. You don’t understand, our homeland is where we were born and have grown up. We cannot forget or abandon our homeland.”
- (Kim Bak Mun, 1992: 27)

## 21. *Bronze Jar*

- “A greedy landlord lived in the house hung with brass bells with a “fish” clapper and in the shabby stableman’s hut reeking of horse dung within the first gate there lived an honest and hardworking servant Hanadung with his ailing old mother.”
- (Li Won U, 1986: 2)

## 22. *A Tale of Two Generals*

- “An illustrated book of a fairy tale told by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
- “The people of the two villages loved their home villages where their ancestors had lived and they cultivated their courage.
- Whenever invaders raided the coast, they would come out as one and fight bravely and repulse them.”
- ( Kim Yong Nam, trans., 1989: 1-2)

## 23. *KYE WOL HYANG*

- “The moon cast its light on the pale face of Wol Hyang as if in sorrow. Everyone who was present shed bitter tears for the death of the patriotic entertainer Kye Wol Hyang who had been a well-known figure among the people.”
-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Pyongyang, Korea, 1988: 52)



## 24. Works Cited

- Lathey, Gillian.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New York: Routledge, 2016.
- Ko, Seonju. "Translated Picture Books in Korea from 1969 to 2012." *Child Studies in Asia-Pacific Contexts* 4(1) (2014): 65-76.
- Hyun, Theresa. "Changing Paradigms, Shifting Loyalties: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Colonial Korea (1900-1940) and North Korea (1950-1960)." *Agency and Patronage in Eastern Translatology*. Eds. Ahmed Ankit and Said Faiq. Cambridge: Cambridge Scholars Press, 2015. 23-34.

## 25. Works Cited Cont.'d

- Damron, Julie. *Korean Stories for Language Learners*. North Clarendon, VT.: Tuttle, 2018.
- Kim, So-un. *Korean Children's Favorite Stories, Fables, Myths and Fairy Tales*. North Clarendon VT.: Tuttle, 2019.
- Jeong, In-seop. *Folk Tales From Korea*. Carlsbad, Ca. and Seoul: Hollym, 2005.
- Kim Bak Mun. *Arang and Yari*.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92.

## 26. Works Cited Cont.'d

- Li Won U. *Bronze Jar*. Trans. Choe Gyong Su.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6.
- Kim Yong Nam, Trans. *A Tale of Two Generals*.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9.
- *Kye Wol H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Pyongyang, 1988.

## The Translator's Many Hats: Economics, Practice, and Experience In Translation

Jake Levine

In the essay “Beyond Fidelity: Translation as a Language that Doesn’t Exist,” I briefly discussed how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ranslator and text can dictate the process and quality of translation and that there are different circumstances to every translation that are mediated by the conditions in which the translation process is brought about<sup>1</sup>. I’d like to expand on that idea, give some examples of different kinds of translations I’ve done in the past, how I came to these projects, the resulting strategies took in terms of style and craft, and how some of those decisions were brought about.

The first thing that I should repeat, albeit briefly, is that the translator does not begin all translation projects out of some deep rooted love or desire to contribute to the literary arts or culture or humanity. Many translations, even poetry translations, begin as economic transactions done out of financial gain or necessity. It is difficult to begin to talk about the heady topic of the politics of a translated text, some kind of Benjaminian pure language, or translation as an art without acknowledging that the economic base of each translation project dictates a lot of how the translator will go about their task. That doesn’t mean that projects that are commissioned won’t become labors of love, its just that if something is commissioned, it probably doesn’t start out that way. When a translator begins a project with no aspiration of commercial gain, it is simply a different launching point than if a project begins with a contract, with a deadline, with terms and conditions, with desired outcomes. In the language pairing of Korean to English, there are several institutional bodies funded

---

<sup>1</sup> Levine, Jake. “Beyond Fidelity : Translation as a Language That Doesn’t Exist.” *Acta Koreana*, vol. 24, no. 2, 2021. Pp. 149–166.

privately and by the government that support literary translation. The most prominent of these foundations is the Daesan Foundation and the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KLTI). For a time I lived in Lithuania. Although the Lithuanian Cultural Institute offers support grants for literature, in terms of the amount of support it offers and the breadth of projects it supports, I can't think of any equivalent institutions in any country that offer as much support and funding as KLTI. In particular, KLTI has a sample translation grant, which offers 4 million won for a sample translation that translators can use to pitch to publishers, or which publishers can access by contacting KLTI. If a sample is picked up by a publisher, then the remainder of the translation is automatically supported by KLTI. In English alone in 2021, KLTI supported 29 sample translations, including 9 poetry samples<sup>2</sup>. Because the sample translation system allows translators to get paid for their work over time rather than receiving payment in one lump sum at the end of a project, it offers translators without financial stability a source of income while they work. However, even if there are more funding opportunities for Korean to English translators, it does not mean that funding is guaranteed, nor does it mean that they are well paid.

The translation grant for KLTI is 4 million KRW. This is for 30 poems, plus the paperwork associated with the grant. So let us say the median income for Korea is something around 35 million won. In order to get that much, if it was possible to apply for multiple translation sample grants, which it usually is not, you'd have to apply and receive 9 sample translation grants in a single year. Considering a sample translation grant is 30 poems, then that means 270 poems a year. Certainly this is impossible. And even if it was possible, there is not that much support available to an individual translator (especially of poetry).

---

<sup>2</sup> [https://www.ltikorea.or.kr/en/contents/business\\_trans\\_1\\_1/view.do](https://www.ltikorea.or.kr/en/contents/business_trans_1_1/view.do)

And even if a project receives a sample translation grant or even full funding, that doesn't mean that the book will get picked up by a publisher.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there is a basement (perhaps a metaphorical basement) where thousands of sample translations are sitting, unpublished, unpitched, gathering dust. Grants like the translation sample grant offered by KLTi are in some ways a double-edged sword. A translator might feel that their job is over when they get the grant, that it is the grant provider's job to act as an agent and sell the sample to a publisher.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While KLTi provides support for by providing samples to publishers, it is not in charge of actively pitching projects. It is not an agent.

Unfortunately, the job falls onto the translator as most translators also act as their own agent. The job they do is often called pitching and catching: pitching book projects to potential publishers, and catching projects commissioned by publishers, agents, literary organizations, etc...<sup>3</sup> This has consequences for the work translators do. The projects a translator pitches might be more loved than the ones they catch. Also, if you are translating from a minor language, which has less visibility or popularity in the English language market, and there are no institutions to offer support for the publication and translation of the project, then publishers are less likely to consider your pitch, and a translation of any book, even a great book, is less likely to find their readers. While these are things the translator has to keep in mind while they work, I would argue they have to develop a double-consciousness in order to do their job well. A translator is an agent whose work is made into a market commodity to be sold or bought, they are reduced into a wage laborer,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text is also reduced to a commodity relationship. But in order

---

<sup>3</sup> Wright, Chantal. *Literary Translation*. Routledge. New York, New York. 2016. P.14

to act as an artist deeply engaged in their work, they have to work as if they are free of these pressures.

Because I came to translation after being an American poet and an editor and a literary organizer for many years, I had (most unfortunately) grown accustomed to unpaid labor as the sort of defacto mode of literary culture. As a poet I never have some kind of concrete economic goal or objective in mind when I begin writing a poem. And if I did think about money when I begin to write poems, then I would have probably stopped writing a long time ago. While there are probably less economically profitable activities than writing poetry, like playing cards, there are quite a few things I can think of that are more economically profitable (even playing cards?). This is because when you are writing a poem, it is hard to know whether the work you do will result in a usable outcome, or any outcome at all. And even if there is an outcome, there is a very small to almost non-existent possibility that you will be remunerated for your work. So it is best not to think about money or social capital. That's because much, if not most of the labor of art is experimenting and failing. Translation also requires a lot of time you have to dedicate to experimenting and failing. And sometimes a translation project will begin with the work of experimenting and failing without knowing whether there will be a usable outcome or any outcome at all. The kind of translation work where you are spending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experimenting and failing feels a lot like the work of writing poetry, albeit in a different mode. When you labor free from economic or market oriented objectives, your labor frees you to imagine things otherwise, which is what it means to be creative, which is making art. This might be some idealist, utopian thinking on my part, but I think we "possess art lest we perish of the truth."<sup>4</sup>

---

<sup>4</sup> Nietzsche, Friedrich. Ed. Walter Kaufman. *The Will To Power*. Weidenfeld and Nicolson. London. 1968. P. 435

So I think it is important for translators as artists to understand this feeling. Even Walter Benjamin says that a translation should “lovingly and in detail incorporate the original’s way of meaning.”<sup>5</sup> If a project begins out of passion or love or a promise to a person, if something begins with a deep engagement, then it is much easier to dedicate the time to bring the feeling to your labor than it is when you are contracted to do something. However, once you experience the feeling of what it feels to labor without economic pressure or constraints, understand how to get to the lab, how to experiment and fail, you can bring that to any project. However, when you begin a project with a contract and payment, it is in your economic interest to limit the time you spend experimenting in the lab, and it is hard not to calculate your diminishing hourly rate as you work. When you begin a project with no promise or prospect of payment, when you begin purely with engagement, with time spent voluntarily, then even if you are later contracted and are getting paid, it is much easier to stay in the lab late because you’ve already dedicated so much time in it.

Of course, it is much easier to labor free from economic outcomes and objectives if you don’t have economic stress, i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money. I remember, one of my old poetry professors, the late Peter Wild once gave me advice. I used to meet him between classes in the outdoor corridors of the Modern Language Building at the University of Arizona. He would feed pigeons with torn up pieces of bagels beside signs that said “Do not feed the birds.” One afternoon he said to me, “Mr. Levine, I’ll give you some advice. Marry rich. The best thing you can do for your art is to marry rich.”<sup>6</sup> Many successful academics, writers, poets and translators I know come from, fell into, or married into money. Having economic security allows people to take risks and experiment without their failures

---

<sup>5</sup> Benjamin, Walter. Ed Marcus Bullock and Michael W. Jennings. *Translator’s Task, Selected Writings Volume 1: 1913-1916*.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1996. P. 260

<sup>6</sup> Many of the most successful academics, writers, poets, and translators I know come from money. Having economic security allows for people to take risks and experiment and fail. Those who don’t have means have less wiggle room for failure.



resulting in financial ruin. Those who don't have means have less wiggle room for failure, and are generally forced to do jobs that take them away from their passions. Alas, I have not followed or been able to follow Peter Wild's advice, and so like all the artists and writers and translators of my socioeconomic standing, I do some projects for money and some projects for love. And this is on top of having a full-time job. But to speak truthfully, even if a project begins for money or out of love, all of them end up a mix of something in between the two (after all, the projects done purely out of love end up costing money in one way or another). To rewind just a little bit,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writing poems and translating, even translating poetry, is that I expect to be paid for my translation work. While it is always an added bonus to get paid for writing poetry, I never expect it.

In terms of translation work, the work I do most for love is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of poetry in particular. A lot of translation theory puts a premium on literary translation, and especially the translation of poetry. But what is it that makes literary translation unique? What is it that makes the translation of poetry unique? Is it because poetic language is more difficult? Because poetry communicates the ineffable? I have done a lot of translation in the cultural sphere outside of literature, translating the diaries of the Dansaekhwa artist Yun Hyong-kuen, translating for the K-pop group ENHYPEN, translating essays for art exhibitions, translating promotion materials for the Daegu Convention Bureau, etc... For me, and this might be not very exciting to hear,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literary translation and other forms of translation work I do is that I get paid less for it. So why do it? Chantal Wright, in the chapter "Why do we translate?" from her excellent book *Literary Translation*, discusses reasons why literary translators translate.<sup>7</sup> I think another way to think about this question is not "why literary translators translate" but more "why literary

---

<sup>7</sup> Wright, Chantal. *Literary Translation*. Routledge. New York, NY. 2016. Pp 13-43.

translators translate literary texts when they could be translating something else for more money.” Some of the reasons she outlines are

Personal response: when a translator feels drawn toward a text and wants to give readers of another language a chance to read it. Or the translator ha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author and wants to do translate their work as a personal favor.

Change the world: The translator either has a humanist motive, contributing to the betterment of mankind, understanding between different peoples, etc.... or they have an ideological agenda or agendas. For example decolonizing, anti-militarism, tearing down the patriarchy, or conversely, actively contributing toward upholding longheld prejudices and strengthening the patriarchy.

Translation as a mode of reading and writing: Translation as a practice, either because it brings great pleasure, holds some utopian and redemptive function for the individual, or is done for research and methodology purposes.

More or less, I too alternate between all these reasons why I translate poetry. I also admit that there are times when the light of these reasons dims to an extent where I don't know why I am translating poetry. This state is what I call poetry translation burnout. I will take a detour here for a moment and say that in this, translating poetry is not unlike some other professions. My brother was a humanitarian aid worker and currently works for an NGO that produces repor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aid distribution. He got into his field for idealistic reasons, he wanted to change the world, but often times when he is overstressed and wonders why it is he isn't doing a myriad of things in the private sector where someone of his equal skillset makes double or even three times as much money. Like Jonah in the whale wondering if G-d has forgotten him, at those moments he looks toward the world for some valuation for his existence, and if he doesn't receive an answer he feels very sad and alone. This is true for poetry translation as well. But luckily for translators of poetry, there is a long theoretical

tradition of justifying and philosophizing the value of it! So whenever I get down about how little I am getting paid, how few readers there are for poetry in translation, etc... I look to philosophy and theory. For this reason, I think philosophy and theory of literary translation is more useful for morale than it is for practice. Whenever I get poetry translation burnout I read Ricoeur.

But that begs the question: why do we hold literary translation at a premium when the market doesn't? Is it because literary translation requires more fidelity to the original text? Because it requires more sensitivity to reading and understanding the source language? Because it requires a certain creativity in producing a text in the target language? Not necessarily.

In some ways the translation work I've done that has required me to stick closest to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is technical and commercial work. For instance, recently I was commissioned by the Daegu Convention Bureau to translate and edit materials for an application they put together for the city of Daegu to host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They received a letter of support from the mayor of the city that they had me translate as a part of the application. Part of my job as a translator was to "naturalize" the language, to make it as persuasive as possible to the Association committee that will be evaluating the application. I put "naturalize" in scare quotes, because what does "naturalize" really mean? What is natural? I thought "naturalize" meant reordering the structure of the letter, adding segues between paragraphs, adding some content like an ending that would be common in a letter of this kind. One would assume that a translation job like this requires that the translator bring the text as close to the target language as possible. However, anyone who has had to work with government officials or administrative bureaucracies in universities or museums knows that there is a chain of bureaucracy, and that the communication that travels through the chain is like playing a game of telephone. In my experience, doing this type of translation

work has means that the intended audience for the translation is less the reader it is meant for, and more the administrators who commission the work, or in this case, a third party that the translator is not in direct contact with. I had already done a lot of work on the other documents for this application and took a lot of liberties to change a lot of content, so I felt like I could have the same freedom in regards to the letter. I have participated and attended many academic conferences, after all, so I felt like I was pretty familiar with the kind of language associated with a humanities conference. However, when I presented my translation to the bureau which then presented the letter to the mayor's office, it turned out that the office of the mayor didn't like the liberties I had taken and told the bureau which told me that I had to retranslate the letter to omit many of the additions and structural changes I had made. This resulted in a series of revisions as well as a long chain of correspondence between me, the convention bureau, and the mayors office.

In many circumstances a translator is also required to upgrade, correct, and rewrite a poorly conceived original. One could argue that translating poetry is the most difficult form of translation as the translator has to include poetic effects, the ineffable, the environment of the language, what the language does in addition to what it says etc... But what about a translation job where you have to complete the text because the original is unfinished or incorrect? I am given quite a lot of work where the original text is this way, and because if the translation is equally incomplete or sloppy, I will be blamed for a poor translation, so I am forced into a position to complete the text for the author.

Because most translation work is based on either word count or character count, and not is not billed by the hour, every minute spent doing more work cuts deeper and deeper into my hourly rate. One would think that more back and forth between a client, the administrative staff or an intermediary, and the translator would lead to better translations, but often times the translator, because they don't have skin in the game, and are trying to

balance doing a good job with maximizing the profitability of their labor, are less likely to fight for what they believe in. That's because it is easier just to complete the job than argue about what a good translation looks like. This explains a lot of the awkward and error filled English translations that are so common between Korean and English. Additionally, the administration or bureaucracy in charge of the text may make additional, final changes after the translator's job is finished. Many errors are also created when this happens. Even for large companies or government institutions, it is common to also have mixed translation and human translation, where some translation of the text is done by a program and some is done by a human being. The products of machine translation range from mildly awkward to deeply embarrassing. I was recently reminded of this when I was in a taxi coming home from Dongdaegu station and saw a billboard outside an proctologist's office that said "Asshole surgery." However, despite the risks of machine translation, it is free and convenient, so people will continue to use it. Unfortunately, the increased use of machine translation further decreases the value of human translation.

When you become accustomed to working in this kind of environment, it will inevitably affect the outcome of your work, even if the work you are doing has more cultural weight than some letter of support written by a mayor. The people who translate cultural content for Netflix, for instance, are commissioned to do a wide variety of translations. Imagine working on a letter for a mayor, translating an instruction manual for a toaster, interpreting for a CEO in the afternoon, and then going home to translate a drama at night on a tight deadline. That is the kind of workload some translators deal with. Anyway, as I understand it, the way shows get translated, at least for Korean Netflix content, is that Netflix has an agreement with a translation company which then hires freelance translators to translate subtitles for their shows. Recently there was a huge todo about the translation quality of the worldwide hit *Squid Game*, that *Rolling Stone* reported as "failed translations in

the English-language subtitles.”<sup>8</sup> The TikTok user Youngmi Mayer made a series of videos explaining where the translations went wrong, and why that matters in each particular case. But they also didn’t want to blame the the translators, saying “Translators are underpaid and overworked and it’s not their fault. It’s the fault of producers who don’t appreciate the art.”<sup>9</sup> What I find interesting about this is not so much that translations are being critiqued. The majority of criticism I read about translation, especially academic criticism, is about how so-and-so mucked something up, revisions illustrating how the translator should have done it, an argument about how the critic or academic could have done a better job, etc... What struck me is the last thing Mayer said, that the errors were a result of “producers who don’t appreciate the art.” Although the ambiguity was probably not intended, it left me wondering if Mayer was referring to “the art” as in the art of translation, or “the art” as *Squid Game*.

What I find interesting is that it is my experience that when I translate poetry I am always in the position of having to play the dual role of having to explain and justify “the art” of my translation, the choices I make, the method, and also “the art” of the work I have translated. I am asked to be a practicing translator, to be familiar enough with translation theory to explain my practice, to debate with others about why I made certain choices, but also I am asked to be a scholar and critic, to explain why I chose to translate the text, how the text fits within the history of the literature, why the text is important, what are some of the major themes of the text, how to teach the text, how my identity relates to my reading of the text, how my identity relates to my translation of the text, etc... In order for a book to get published, and in order for the book to find success, and for it to find readers, there is also a litany of ancillary tasks that need to be done, almost all of it unpaid. Let’s take the book

---

<sup>8</sup> <https://www.rollingstone.com/culture/culture-news/squid-game-closed-captions-subtitles-mistranslation-1237308/>

<sup>9</sup> <https://www.rollingstone.com/culture/culture-news/squid-game-closed-captions-subtitles-mistranslation-1237308/>

*Hysteria* by Kim Yideum for instance. I wrote a publication and translation grant application, handled all the paperwork and correspondence concerning the application. In order to promote her work and also to attend readings, I also wrote a grant for Kim Yideum to attend the AWP conference in Los Angeles in 2016, I booked and helped organize all the readings she participated in. I also booked the airfare and lodging. My co-translator Soeun Seo and I interviewed Yideum, our other co-translator Hedgie Choi transcribed and translated the interview, then I edited and submitted the interview to publications. In addition, I consistently sent out work from the book to be published in literary magazines and journals, handled all the correspondence, wrote an introductory essay for the book, wrote an introduction for the interview, made sure the press submitted the book to book awards, and since the book has come out, I have also handled a lot of correspondence and acted as a middleman between Kim Yideum and various editors, publishers, and festival organizers abroad. For remuneration we did receive a translation grant from the Literary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and we won both the National Translation Award and Lucien Stryk Prize. The translation grant was 12,000,000 KRW. For the national translation award we received 2,500 USD and for the Lucien Stryk Prize we received 5,000 USD. So, in total, we received something in the realm of 15,000 USD. Which doesn't sound all that bad. But, if you divide that up three ways that is around 5,000 USD per translator. And then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not including any of the ancillary work, just for the translation of the book, this project took us almost 5 years to complete. So that is around 1,000 dollars per year per translator. Let's say we spent only around 3 to 4 hours a week on the book, averaging 200 hours a year. That means that our hourly pay for translating *Hysteria* was something in the ballpark of 5 USD an hour. And this is the most amount of money, by far, that any of the literary projects I've worked on have received. Don't get me wrong, I am incredibly grateful to have received the financial support of KLTi and awards from the American Literary Translation

Association. Korean to English literary translators have a stronger support system than most language pairings, but even with this support, if I break down the remuneration versus the labor, especially considering all the unpaid ancillary labor, then let's just say if I had windows in my skull, the accountant in my brain would want to jump out of them.

Conversely, there is my experience translating narration tracks for the K-pop group ENHYPEN. This includes the intro/outro on their first mini-album *Border: Day One*, the intro/outro tracks on the second album *Border: Carnival* and the intro and interlude for their first full length album, *Dimension: Dilemma*. Now, it could be argued that my translations aren't translations, since the group performs these songs in my English instead of the source language of the text. Additionally, for a variety of reasons I will explain a bit later, I took liberties in the translation of these songs that I wouldn't have taken in poetry. For this reason, and I think this is the first and only case this has ever happened in K-pop, I demanded to receive credit for the translations in the liner notes. Although translating poetry is held up to be translation par-excellence, my experience of translating K-pop for ENHYPEN has been extremely rewarding both economically and creatively. I have been allowed to translate free of many of the burdens that come with poetry translation. As I said earlier, I have always had to explain, introduce, and justify my translations of poetry, but I am never asked to do any of these things when I translate K-pop. When I translate K-pop, I just translate. I don't write grants. I don't do any of the ancillary unpaid tasks. I don't think about positionality. I don't have to introduce or place the work within any context. And, most importantly, I have never had to justify my decisions or feel it necessary to justify them. I just go into the lab, do some experimenting, and get paid. Because I don't have to feel the weight of having to answer any scholarly questions about K-pop or my translation methodology, I am freed to take liberties I wouldn't feel that I'd have if I was translating poetry. That doesn't mean that my K-pop translations are even more transgressive and creative than my poetry translations. Far from it.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K-pop genre, the type of cultural product it is, versus poetry and particularly poetry of the avant-garde type, I have a completely different attitude towards both the process of reading the source text and writing the translated English for K-pop.

That's because, aesthetically, poetry and K-pop are complete opposites. Poetry, as far as I've known it, is about challenging oppressive and hegemonic ideologies, either overtly in its message or covertly through its use of language. Poetry is also about compressing language to carry as much meaning as possible, is about defamiliarizing language, balancing sound and sense. Poetry often trades in the currency of paradox, aims to avoid clichés, works in a type of language that the poet Kim Haengsook calls precise ambiguity. To echo the poet Mia You, I fear that most K-pop is about spitting "back a glitter-covered and Auto-Tuned echo of the Empire, just to please it."<sup>10</sup> It is about overloading the audience with a barrage of clichés, symbols, and allusions, a bombardment of things familiar, yet recontextualized, reappropriated, hinting at a narrative thread or overarching structure that often crumbles as soon as it is investigated. It points to somewhere familiar and at the same time distant, referencing so many things and places at once that its located nowhere at all. It is what I call Monster Kitsch. In short, poetry is difficult but rewarding because it provides the reader with secret, unfamiliar doors to unlocking new ways of seeing the world, which can be used as tools to challenge and destabilize it. K-pop is easy and fun because it bathes you in meaning that exists in the world which allows you to live more comfortably. It allows the audience to feel empowered through positive branding and easy consumption. In my essay "Beyond Fidelity: Translation as a Language that Doesn't Exist," I argued that the literary translator needs to employ restraint because what they are shooting for is not pleasure, but the sublime. Then I paraphrased Harold Bloom who was paraphrasing Pierce Byron Shelley, who said we

---

<sup>10</sup> <https://www.poetryfoundation.org/harriet-books/2015/10/everything-i-needed-to-know-about-poetry-i-learned-from-kpop>

need the plane radiance of the sublime to free us from the slavery of pleasure.<sup>11</sup> K-pop is the opposite. The entire point is to have the audience indulge as pleasure slaves. However, as much as poetry is not like K-pop, they both occupy places within culture, are cultural products, and are linked in many ways. Many people look for and desire poetry in K-pop and there are those that look for and desire some K-pop in poetry. Admittedly, I was always skeptical of K-pop having any value other than cheese. But K-pop in its own way can be subversive, and poetry can be cheesy like K-pop. Although I've lived in South Korea since 2012, I took zero interest in K-pop, both as an artform and a cultural phenomenon until the first book of poetry I translated came out in 2016.

It was in that year that I went on a book promotion tour, doing lectures and readings with the Korean poet Kim Kyung Ju for his book *I AM A SEASON THAT DOES NOT EXIST IN THE WORLD* around the United States, mostly at universities. I had been involved in poetry organizing and events series and lectures for a long time, so I knew the turnout for poetry events in general is not always great. However, much to my surprise, huge numbers of young people were turning up to these readings at university lecture halls. And they were buying books. Usually on a reading tour you bring around 300 books with you and you assume you might sell 150 if you are lucky and give around 50 away to other poets, but we ended up selling out of all the books we brought with us almost immediately. And during the signing of the books, all these young people, they came up to the author and I, and they told us about their love of K-pop and dramas, and these K-pop songs, and they were learning Korean and wanted to visit Korea. The fact that kids were attending poetry readings and buying Korean poetry is a part of a larger cultural shift in how westerners are consuming Korean culture.

---

<sup>11</sup> Bloom, Harold. *The Daemon Knows: Literary Greatness and the American Sublime*. Spiegel & Grau. New York, NY. 2015.

When I say K-pop is Monster Kitsch, I mean monstrous in a kind of terrifying way. Aesthetically images, themes, loaded symbols and concepts repeat and high and low art bleed together into a smooth cheesecake space. In terms of both the type and the amount of content produced, both the actual music, music videos, but also the supplementary content of behind-the-scenes videos, sns updates, backstage content for super-fans, etc, there is an overload of what is being said and what is produced, where so much is being said that the music doesn't actually communicate anything at all, that there is so much content being produced, that no one song, dance, or music video has any lasting value. I also mean monstrous in the sense of Hermann Broch who called kitsch "the element of evil in the value system of art" or Theodor Adorno who thought of kitsch as poison<sup>12</sup>. There is too much, too many loaded symbols, depthless narratives, a hodge-podge of religious, political, social, and commercial kitsch, coming from a wide variety of platforms.

Historian Ted Gioia in his recent book *Music: A Subversive History* writes "When companies treat songs as 'content' for mass entertainment, they aren't really all that different from Harvard psychologist Stephen Pinker and his reductionist claim that music is just "auditory cheesecake" for the brain, akin to a recreational drug or six pack of Budweiser."<sup>13</sup> Gioia describes how when music is treated as content, it is an admission that it is generic, exchangeable, and is reduced to a bare commodity "without social significance" or "larger purpose." And of course, with the government sponsored, nationalist K-everything munhwa contents drive, one has to think that K-pop is a type of music treated as content par excellence. However, there is something in this quote of Pinker that Gioia uses that I find interesting. In some ways commercial music can be subversive like drugs or alcohol. So I

---

<sup>12</sup> Dorfles, Gillo, and John. McHale. *Kitsch : the World of Bad Taste / Gillo Dorfles ; with Contributions by John McHale ... [Et Al.] and Essays by Hermann Broch and Clement Greenberg*. Universe Books. New York, NY. 1969. P. 63

<sup>13</sup> Gioia, Ted. *Music: A Subversive History*. Basic Books. 2019. P. 283

began to think, like drugs and alcohol, maybe K-pop is a gateway drug to other Korean content that has more social significance and larger purpose. Because of its popularity and accessibility, perhaps, at least to western audiences, K-pop could be a gateway drug to Korean poetry.

Perhaps that is also why when then Big Hit Entertainment, now Hybe, contacted me to translate narratives for a group they were debuting, beyond not only the prospect of doing a job for money, I was excited to be a part of the K-pop factory. I could get personal experience being a part of the machine that makes the poison that leads some kids down the dark alley to translated poetry.

So here I would like to give some examples of translations I made for this group, some explanation as to the decisions that were taken, and how this differs entirely from translating poetry. As I said earlier and argued in a different essay, translating poetry requires restraint. Translating K-pop on the other hand begs the translator to amplify and upgrade. As an example, I'll go over the song "Intro: Walk the Line" from ENHYPEN's album *Border: Day One*. There will be two translations given, one dynamic, with amplified and upgraded language (blue). The other, a more literal translation (red). I will break the poem up into sections with a brief explanation of some of the choices made in the translation below the excerpt.

거친 숲을 등 뒤로 한 채 맞이한 첫번째 태양

우리의 두 눈에 비치는 것은 가쁜 숨에 깃든 푸르른 생명,

With the rugged wood at our back we greet the sun.

It shines in our eyes, an azure life dwelling in breathlessness.

The first sun that we greeted with the rough forest at our backs

is reflected in our eyes, a blue life dwelling in breathlessness.

As you can see, the dynamic version splits the first two lines in two, opts to drop the 첫번째 that modifies the sun. Additionally 가쁜 숨에 깃든 has been modified slightly, as an even more literal translation could be possible, for instance “a blue life that saturates a deep breath” etc.. Blue has been made into “azure” to upgrade the language, but also to create a sense of rhythm in the line. There is a natural, but subtle pause in “an azure life / dwelling in breathlessness” that is more drawn out than “a blue life.” Additionally the “n” in “an” and the “r” in “azure” give symmetry to the line, with the alliterative relationship to the “n” and the “r” in “shines in our eyes.” Another reason the dynamic version incorporates diction choices like “rugged wood” and “azure” is because there are literary allusions to Shakespeare, and these choices make the entirety of the narration appear to be more consistent.

그리고 드넓은 땅을 가로지르는 길고 긴 선

우리는 그 선을 따라 걷는다,

세상이 우리를 그 위에 새겼으므로

We walk the long, drawn-out line

that cuts across the vast land

because the world carved us on that line.

And the drawn-out line that cuts across the vast land

we walk along that line

because the world carved us on it.

In the dynamic version there is the added “long” and the added comma, which slows down the line, cutting it in half, making the length of the “drawn-out” line actively perform its length.

선 위의 발자국은 어디로 향하는가

그 끝에 어떤 하늘이 펼쳐질 것인가

On the line, where do our footprints step to?

And what sky spreads at the end of it?

Where do the footprints on the line head to?

What sky unfolds at the end of it?

This part in particular is where the dynamic translation takes a lot of liberty. “where do our footprints step to?” is giving the footprints agency, which is personifying them, additionally the verb choice activates the language, where the footprints are literally the thing stepping somewhere. The sky, also is given a lot of agency. As it is the thing doing the “spread”ing, it is also personified. Probably a closer translation to the original would be “what sky would be spread at the end of it?” However, the double personification of the footprints stepping and the sky spreading creates an additional layer of uncertainty. It also gives these two lines a nice sense of symmetry.

펼쳐진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given) 것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달린다,

우리의 눈부신 새벽을 세상에 새기기 위하여

Even if the world that unfolds is not what we are given  
to the unknown we run  
carving sunrise, burning bright, across the world.

For we don't know whether the world that unfolded is given to us or not  
we run  
to engrave our brilliant daybreak in the world.

The dynamic version omits the possessive “our” and also the language of intent or purpose “to” or “위 하여” has also been omitted. However, both the language of the last line has also been expanded where the effect of the action of running has been amplified, where the sunrise that is carved becomes an active image, a sun that burns across the world, rather than just a description of intent “in order to engrave our brilliant daybreak in the world.” Across the world also enlarges the extent of the effect of the action of running to encompass the world’s entirety.

As you can see, my translation created a series of poetic effects that were not present in the original Korean. The fact that the group performs the song in English probably means that the listener assumes that the lyrics were originally written in English, which is not entirely incorrect! I couldn't help that once I was given license and freedom to do it, I totally indulged in revising the text toward maximum poetic amplification. It was extremely gratifying to do this, as almost all of these choices would be hard to justify, politically, ethically, and linguistically in the realm of poetry. That doesn't mean that less creativity is required in translating poetry. On the contrary, creativity is required at all times, but so is subtlety and nuance. The subtle notes and nuance of a poem, the ability to feel and understand a poem's poetic affects, happens first as a reader. In order for me to translate a poem, I usually have to have a good theory or understanding of not only what the poem is

about, but how it is communicating. There is very little that is subtle and nuanced about the original lyrics to the ENHYPEN song. That'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And, honestly, I have no idea what the song is trying to communicate. I don't know if pop music really communicates anything. One of my favorite artists of all time is David Bowie. I don't know if any of the lyrics of his songs actually mean anything. But they made me feel things, and I love them! So when I was translating, like a bomb, I was just trying to load the language with as much meaning as possible. That way, when the song goes off, the fans on youtube can spend more time creating theories about what it all means.

In poetry, as I've said, the translator should have a very clear idea of their own reading of a poem. Otherwise, it would be hard to translate it. And the translator often makes their reading evident in the text of the poem. Just to give a brief example, the homonym 눈 means either "snow" or "eyes" or both. In my translation of Kim Kyung Ju's first poem, "The Outer World" in his book *I Am A Season That Does Not Exist In The World*, there is a line in which the meaning is ambiguous. In this case I went with a maximalist interpretation of the line.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색(色) 하나를 찾기 위해  
눈 속 깊은 곳으로 어두운 화산을 내려보내곤 하였다  
그는, 자궁 안에 두고 온  
자신의 두 손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To find a color nobody had discovered  
he descended a dark volcano  
deep into the snow, in his eyes, inside the womb  
it was there where he left



the two hands that he'd been painting.

To justify this maximalist translation, I believed the whites of the eyes were like the snow in the volcano, and the crater in the center, the darkness represented the pupil, which also connected to the womb. Without the eyes, the English language reader would have missed this additional reading of the poem, however with the eyes, they are not given the opportunity to decide for themselves whether or not that there are both “snow” and “eyes.” This is an approach that favors all of the meanings rather than just a singular interpretation. There is an interesting instance of the same 눈 homonym being translated in a way where the translator closes off the possibility of the dual meaning of the Korean homonym, but in a way which makes the possibility of a double meaning felt. In Jae Kim's translation of Lee Young-ju's poem “Roommate, Woman” there is a section

While we sit on leaking fuel tanks and watch the pale clouds, our joined hands slip  
out the door. You pick up one of my eyes worming under your foot. It may snow.  
Snow (not an eye) like the bandage around my hand, smeared in crimson light.

The (not an eye) is, of course, not found in the source text. The story of this quite funny. I made a comment about this poem, and I asked Jae, are you sure this is not an eye? The fact that an eye appears earlier “worming under your foot” suggested to me that this might have a dual meaning. And his response was to change the line to include the dual meaning, but in a way that was negative! It's not an eye (but it could theoretically be read that way). Brilliant.

Another example of a translation of homonym is Soeun Seo, Hedgie Choi, and my translation of Kim Yideum's poem “정말 사과의 말,” which can either mean “Sincere

Apologies” or “Really, the Words of the Apple”. Of course, all these poets are aware and are using the ambiguity of these homonyms in order to load the language. We erred on the side of a maximalist translation which includes both meanings, but instead of including both meanings in a really long title, after many discussions and a lot of playing around, we decided on a made up a word for the title “Apple-o-logy.” Of course, this word did not exist. But recently I wrote a paper arguing that translation is a language that doesn’t exist. And as long as you are sure that this is the correct interpretation, and this is the correct decision, than the language exists because you have brought it into being.

All of this is to say that in translating poetry, the translator has to have a very clear idea of their reading of the poem and the way that the poem is working. There is not one way to read or translate a poem, in fact a poem that can be only translated one way is probably not a poem, but the translator in order to create a poem in the target language has to feel confident enough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way the language is working and what the language is communicating in order to make a poem out of it in the target language. That way a translator can give you their intention and reading, and be able to justify the choices that they made. The choices that they make, even the most creative of choices, are usually a result of hard-fought deliberation, or wrestling with the source text.

This paper has discussed many of the economic conditions that the translator faces and how that affects the way they go about translating. Just to reiterate, it is difficult to experiment and come up with creative solutions to complex problems like homonyms if you have to worry about money, and therefore are more concerned with getting the job done rather than getting the poem right. In my experience the translator is more likely to give their time and dedication to the works they choose rather than work that is commissioned. Additionally, the more work and variety of projects that a translator does that takes them away from work they are passionate about might affect the way they work on literary

translations. Sometimes one can get burnt out on doing so much labor for such little pay, and for that reason needs a reason to keep going. I discussed some of the reasons why translators continue to translate literature even though they could be doing something else for more money. Additionally, I discussed two creative fields, the well-paid work of K-pop translation and less than well paid work of poetry translation. Both of these jobs require specialized skills that draw on a background in poetry, however they differentiate in the translation process, the economic conditions that are a part of that difference, and the way that these different genres of translation require different attitudes toward the work and toward the text. Then I gave concrete examples of different translations of these two genres, explaining some of the choices that were made by the translator, and the philosophy behind these choices. I hope that this essay will provide the aspiring translator with some critical insight into the reality of the economy of translation, and how that economy deeply affects the way the translator reads the source text and produces translation. For the scholars of translation, I hope this paper also gives them pause to consider the economic reality of the translator and each translation project that they are critiquing. I think in translation there are no mistakes. That's because everything can be retranslated (and hopefully for money).

# 번역문학에서의 젠더 감수성

---

마승혜·김순영 (동국대)

# [연구 배경]

## 1. '젠더 감수성'이란?

- 남녀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비롯된 불평등을 감지,
  - 그 실질적 영향을 이해,
  -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비판,
  -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
- 2018년 대법원 판결문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인용하면서 이 용어가 법률적·사회적 용어로 통용되기 시작

## 2. '젠더 감수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 성역할 고정관념은 후천적으로 학습되어 사회적으로 형성된 부분
- 그러므로 젠더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 고정관념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젠더 감수성에 대한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교육이 중요

### 3. 번역문학을 통한 젠더 감수성 교육

- 문학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젠더 감수성 교육과 인식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체
- 특히, 젠더 감수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문학은 그 영향력이 더 클 것
- 이븐-조하(Even-Zohar)는 문학을 다양한 하위 시스템이 모여 이루어진 폴리 시스템(Polysystem)으로 설명하고, 번역문학을 문학의 하위 시스템 중 하나로 설명함(Even-Zohar, 2005: 6)
- 번역문학은 문학의 일부로서 사회적 인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번역문학을 분석하면 번역문학을 통한 젠더 감수성 교육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

## [연구 문제]

청소년 도서이자 여성 도서의 정전으로 꼽히는 *Anne of Green Gables*의 우리 말 번역본에서 젠더 감수성 교육 기능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 [연구 순서]

1. 문학을 통한 젠더 감수성 교육 필요성에 대해 조사
2. 문학 및 번역문학에서 젠더 감수성 구현 방식 및 사례 제시.
3. 심층 분석을 위해 *Anne of Green Gables*의 한국어 번역본 2종을 선정하여 젠더 감수성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내는 번역본과 그렇지 않은 번역본을 비교·분석함
4. 번역문학에서 젠더 감수성을 구현하기 위해 주지해야 할 점



## 1. 문학을 통한 젠더 감수성 교육 필요성에 대해 조사

- 문학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도덕적,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측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박인기 외 6명, 2005).
- 특히 청소년 문학은 청소년이 접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대상으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시대의 어법과 말투를 사용함. 그러므로 청소년 문학은 그 작품이 등장한 배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장르임(황효식, 2009: 416-417).
- 독자인 청소년은 청소년 문학의 내용과 언어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인지하고 학습하며 성 고정관념을 구축해간다.

2. 문학 및 번역문학에서 젠더 감수성 구현 방식 및 사례 제시.

① 젠더 감수성의 부재로 인해 성차별 언어 표현이 사용되는 양상(박은하, 2021)

a.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표현’**

b. **‘여성을 남성의 하위자로 다루는 표현’**

c. **‘여성을 배제하는 표현’**

d. **‘여성을 주부나 아내 등의 성 역할에 묶어두는 표현’**

e. **‘여성을 남편에 종속시키는 표현’**

f. **‘여성의 행동이나 성품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표현’**

## ② 문학작품 재출간 사례

: ‘여성의 행동이나 성품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

이금이 작가의 『숨은 길 찾기』

(2014년 초판)

“바우가 다른 남자애들처럼 게임을 하거나, 또래들끼리 몰려다니며 치기어린 짓이라도 하는게 화초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2021년 개정판)

“친구와 몰려다니며 말썽을 부리더라도 화초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라고 재작성하였다

→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행동을 차별화하여 고정관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이 표현을 수정하여 2021년 개정판 재출간.

3. *Anne of Green Gables* 한국어  
번역본 2종  
비교·분석 사례

	분석 대상	출판 연도
ST	<i>Anne of Green Gables</i>	2014
TT1	『빨강머리 앤』 (강주헌 옮김)	2008
TT2	『빨강머리 앤』 (고정아 옮김)	2019

## ① '여성을 남성의 하위자로 다루는 표현' 수정

: 고아였던 앤을 마릴라와 매슈가 입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됨.

: 마릴라가 동생이고 매슈가 오빠이기는 하지만, 마릴라가 주도적으로 행동 및 결정하는 경향을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번역본인 TT1에서 남성 화자는 반말, 여성 화자는 존댓말로 말하는 관행을 유지함.

: 젠더 감수성을 반영한 2019년 번역본 TT2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바꾸어 재번역함.

<사례 1>

(ST)

'I suppose I can have the mare and buggy this afternoon. Matthew?' said Marilla.

(TT1)

마릴라가 매슈에게 물었다.

“오빠, 오늘 오후에 말과 마차를 써도 될까요?”

(TT2)

“오후에 마차를 써야 될 것 같아, 매슈.” 마릴라가 말했다.

: TT1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

: TT2는 젠더 감수성 반영하여 번역

## <사례 2>

(ST)

Mrs Lynde says Canada is going to the dogs the way things are being run at Ottawa, and that it's an awful warning to the electors. She says if women were allowed to vote we would soon see a blessed change.

(TT1)

린드 아주머니 말로는 세상이 오타와처럼 굴러간다면 캐나다가 난장판이 될 거라면서, 유권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면 세상이 좋은 쪽으로 변할거라고도 했어요.

(TT2)

린드 아주머니는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캐나다가 곧 망할 거라고, 그게 유권자들에게 경고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선거권이 생기면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하세요.

: '허용하다'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단체가 일이나 행동을 허락하여 받아들이다'는 의미로 특정한 일을 허락하는 '주체'가 반드시 있음을 드러냄.

: 여성의 투표권은 남성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음.

: 부탁을 받아들이는 위치에 있는 대상자만 '허락'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은하(2021) 연구에서도 '허락'을 '여성을 남성의 하위자로 다루는 표현'으로 분류함.

② ‘여성의 행동이나 성품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표현’ 수정

<사례 3>

(ST)

I wish he was like other men and would talk things out. A body could answer back then and argue him into reason.

(TT1)

오빠가 다른 남자들처럼 뭐든 말로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럼 말대꾸라도 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텐데.

(TT2)

매슈도 다른 사람들처럼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하면 좋겠어. 그러면 대꾸도하고 설득도 할 수 있잖아.



#### <사례 4>

(ST)

There was a tang in the very air that inspired the hearts of small maidens tripping, unlike snails, swiftly and willingly to school.

(TT1)

공기 속에는 달팽이의 어슬렁거리는 걸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날 듯 학교로 달려가는 소녀들의 유쾌한 마음을 들뜨게 하는 무언가가 감돌았다.

(TT2)

공중에는 경쾌하고 활기차게 학교에 가는 어린 학생들의 가슴을 흔드는 강렬한 향기가 있었다.

: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

: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학교에 다니는데, 개학 후 학교에 가며 설레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여학생에 한정하고 있음.

: 남성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인데 여성은 감상적이고 정서적이라는 성품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강주헌, 2003)을 타파하고자 함.

## <사례 5>

(ST)

'I feel as if I'd lived many moons since the morning. I ought to be home studying my Virgil - that horrid old professor gave us twenty lines to start in on tomorrow.'

(TT1)

“아침부터 지금까지 며칠은 지난 것 같아. 돌아가서 베르길리우스를 공부해야 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할아버지 교수가 내일부터 당장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20행이나 공부를 해오라고 했어.”

(TT2)

“오늘 아침 이후 몇 달은 산 것 같아. 집에 가서 베르길리우스를 공부해야 하는데 그 지독한 노교수님이 내일 아침에 공부할 대목 스무 줄을 숙제로 내주셨거든.”

: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남녀의 사회적 역할 및 직업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음(박은하, 2009: 10).

: 예를 들어, 경찰, 소방관은 남성 직업으로, 간호사, 항공 승무원이 여성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 TT1에서는 'horrid old professor'를 '무시무시한 할아버지 교수'라고 번역하여 '교수'라는 직업을 남성의 직업으로 상정하며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지만, TT2에서는 '지독한 노교수님'이라고 번역하여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성 편견을 제거함.

### ③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표현 수정

<사례 6>

(ST)

'It's a good thing Rachel Lynde got a calling down; she's a meddling old gossip.'

(TT 1)

“레이첼 린드가 제대로 임자를 만났군. 아무 데나 참견하고 다니는 수다쟁이 할망구가 말이야.”

(TT2)

“레이첼 린드는 그런 일을 당해도 싸. 오지랖도 넓고 입도 너무 가벼워.”

: 언어에는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의식 세계가 반영되어 있음(강주헌, 2003: 31).

: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여성을 칭하는 언어에 여성 비하 의미가 담겨 있다면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존재라고 교육받아도 무의식적으로 여성을 폄하하는 의식 세계를 갖게 됨.

: TT1에서 '할망구'는 '나이든 여자를 얕잡아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남성인 매슈가 여성인 레이첼 린드를 폄하하는 표현이 됨.

: 젠더 감수성을 반영한 TT2에서는 '할망구' 대신 '입도 너무 가벼워'라는 표현으로 대체함.

## [분석 결과]

: 사례 분석 결과 2008년 번역본인 TT1은 젠더 감수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함.

: 그런데 TT1 번역가는 과거 우리말에 나타난 성 차별적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집필도 하며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했던 번역가임.

(TT1 번역가인 강주헌 번역가는 우리말에 나타난 성 차별 구조에 대한 저서인 『계집팔자 상팔자?』(2003)와 이를 좀 더 발전시킨 『나는 여성보다 여자가 좋다』(2003)를 집필한 저자이다. 저자는 ‘모두를 위한 여성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밖에 없고 그 중 언어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박은경, 2003)).

: 우리말의 성차별적 요소에 주목하고 비판했던 번역가의 번역본에 젠더 감수성이 명시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모순적 결과가 나타남.

#### 4. 번역문학에서 젠더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주지할 점

① 문학의 교육적 기능을 인식해야 함.

사회적 인식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문학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장기적으로 교육할 수도 있는데, TT1 번역본에서는 이러한 문학의 교육적 기능이 간과되었음.

② 번역문학도 문학의 일부이고, 번역문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③ 번역 시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는 전략에서 나아가 이데올로기, 사회적 상황 등 여러 요소가 번역에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 번역문이 원문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됨.

특히, 문학 번역가는 다른 언어로 텍스트를 다시 쓰는 “재창조자(recreator)”(배스넷(Bassnett), 2006: 174)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번역 과정에 드러낼 수도 있음.

## [결론]

: 젠더 감수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거나, 젠더 감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거부감이 있는 이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젠더 감수성을 강요하기보다는 간접적이며 우회적으로 젠더 감수성에 대해 교육하고 인식을 함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간접적 교육방안 중 하나가 문학이나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

: 번역문학도 문학의 일부이고, 번역문학을 통해 좀 더 혁신적인 소재나 이슈를 소개하며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번역문학의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전략에서 벗어나 좀 더 독립적이며 실험적인 번역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함.

## [참고 문헌]

강주헌. (2003). 『계집 팔자 상팔자?』 서울: 황소걸음.

박은하. (2021). 「여성의 차별적 이미지 재현과 성차별 언어 표현의 양상」. 『사회언어학』, 29(3), 167-193.

박인기, 김창원, 공숙자, 정유진, 박창균, 이지영, 양경희. (2005). 『문학을 통한 교육』. 서울: 삼지원.

박은경. (2003). “나는 여성보다 여자가 좋다’ 펴낸 강주헌’.

매일경제 <https://mk.co.kr/news/home/view/2003/03/87476/>.

Bassnett, S. (2006). Writing and translating. In S. Bassnett & P. Bush (Eds.). The translator as writer (pp. 173-183).

London: Continuum.

Even-Zohar, I. (2000). The position of translated literature within the literary polysystem. I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pp. 192-197). New York: Routledge.

Even-Zohar, I. (2005). Papers in Culture Research. Tel Aviv: Porter Chair of Semiotics.



# 한국시의 영어 번역 전략 연구

Badioiu Maria Lorena, 이지민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 목차

## 1. 연구 소개

- 연구 배경과 목적
- 연구 대상

## 2.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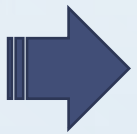
## 3. 분석

## 4. 결론

## 5. 연구의 의의와 한계

# 연구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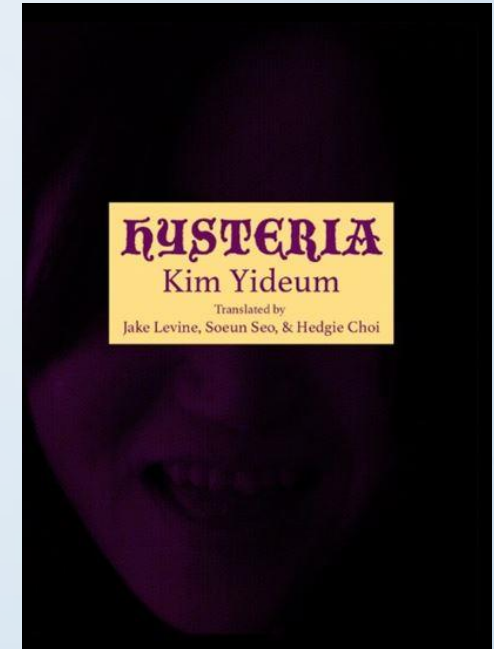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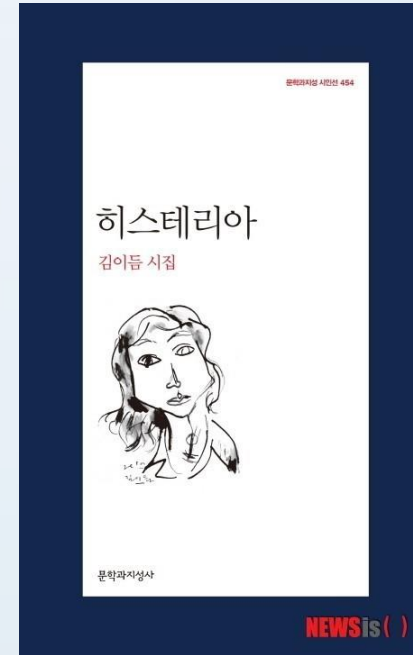
- 해외에서 시문학 번역 연구가 활발한 반면 한국에서는 시 번역 연구가 활발하지 않음
- 특히 현대시 번역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지 않음
- 번역을 통해 해외에 널리 알려진 현대시 번역 연구 필요



한국 현대시를 번역함에 있어 번역자가 인식하는 내포 작가로서 역할(태도)을 격식, 평가(태도, 강도) 측면에서 사용한 전략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 대상

- ST: 김이듬(2014), 히스테리아
- TT: Jake Leven 외 역(2019),  
Hysteria



- 페미니스트 시집
- 이 시는 한국 전통 문학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충격적이다 (Reeck, 2019)
- 버림받은 사람들(outcasts)의 입장 반영하며 한국 문화, 현대적인 모습 역사가 히스테리아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 “Writing poems in Korea as a woman is a kind of resistance. It requires courage” (Yideum, 2019)
- 번역자 Jake Levine - 2020 Lucien Stryk Asian Translation Prize, 2020 National Translation Award (NTA) 수상(the American Literary Translator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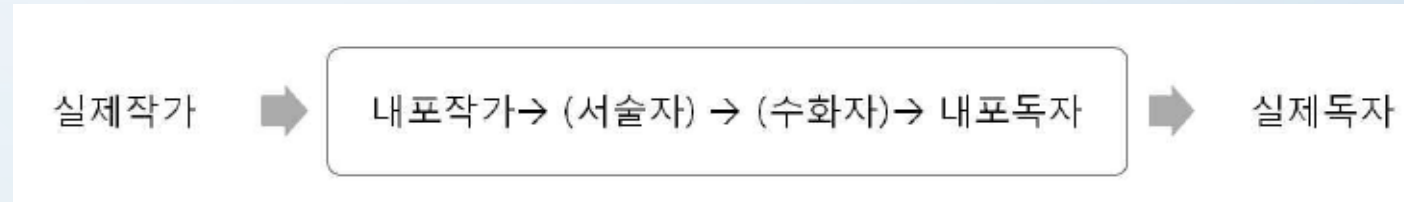
# 연구 방법

- TEXT 분석
  - 전체 스타일
  - 평가 (Appraisal) 측면
- 번역가와의 인터뷰
  - Jake Levine과의 인터뷰를 통한 번역 의도 확인(triang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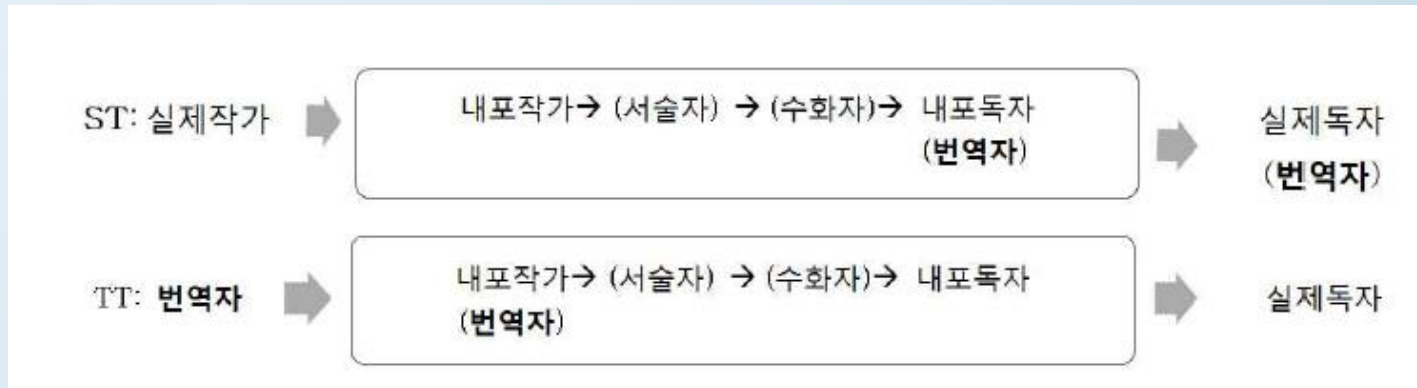
# 이론적 배경

- 내포작가로서의 번역자

- 작품에서 내포작가는 독자에게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서사의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서술자를 움직인다.



- 번역 작품에서 번역자는 ST의 독자로서 ST의 의도와 주제를 해석한 후 TT의 새로운 내포작가로서 재구성



# 내포작가의 태도

- 격식(register)
- 서법(mood)
- 평가(appraisal)
  - 태도: 부정, 긍정
  - 강도

# 전체 스타일

- 구조적인 차원(structural level)에서 변경이 매우 두드러짐
  - 문장 부호(punctuation)부터 절의 역동성(dynamism of stanza), 오역, 길이 변경, 행, 단어 및 표현의 추가 또는 생략
  - 서법(mood) 변화
- 내용적 측면
  - 말장난 일부 사라짐

# 행 구조 변경, 문장 부호 추가, 이탤릭체 사용

ST: 훌쩍거린다. 이상하게 쾌활해진다. 엉겁결로 가는 문간에서 나는 쓴다. 기분이 나쁜 날에는 그늘을 충분히 어둡게 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나에게 대한 반동으로 나는 변할 것인가. 이렇게 시도 아닌 것을 적는 한여름 밤에는 지상의 모든 새가 울고 저놈 검은등뼈꾸기가 유별난 소리 낸다. 시에 무슨 제재를 가하는, 바보 같은 짓, 제목을 붙이려면 죄목을 짓는 것 같아 두렵다.

(팬레터)

TT: I sob and become cheerful. I stumble toward a door and write

*On days when I'm in a bad mood*

*I keep the shadows sufficiently dark.*

*Will I turn into a force that opposes myself*

*because I can't see?*

On midsummer nights when I write shit like this all the birds in the world cry. They aren't even poems. Indian Cuckoos make an especially weird sound. Putting limitations on a poem is stupid. I'm afraid of titling a poem. Titling a poem is like naming a crime.

(Fan Letter)



# 서법 변화

ST: 그녀가 출전할 때

눈을 감아요 나는

내가 안 봐야 그녀가 이기거든요

드레스 리허설까지만 지켜보고

나는 퇴장합니다

오늘 새벽 프리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볼까 말까 머뭇거리고 있어요

(드레스 리허설)

TT: I close my eyes when she enters the scene.

She only wins if I don't watch.

When the dress rehearsal is over

It means it's time for me to go.

But today feels different.

Should I stay and watch the match?

(Dress Rehearsal)

# 말장난 사라짐

ST: 이미 누군가 다 말해버렸다 쓸 게 없다

가슴이 아프다

작아서

(변신)

TT: Everything's been said. There's  
nothing more to write.

My breasts hurt.

Because they're tiny.

(Metamorphosis)

# 격식의 변화 – 격식성 사라짐

ST: 벚나무 아래 사과 놓고 노파

조시나 죽으셨나

(아우라보다 아오리)

TT: This granny peddling Aori apples under a  
cherry tree

Did she doze off? Is she dead?

(Aori More Than Aura)

# 서법 변경 – 대화에서 내레이션으로

ST: - 어디 산다고 해요?

-청송교도소예요. 죄목 뭔지, 어쩌다 감옥 갔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 신기하죠?

-쫓,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복역수들이나 좋아하는 시 쓰는 시인 취급 받기 싫으면요.

(팬레터)

TT: Wait, where does he live again?

Oh yeah, Chungsong Penitentiary. He didn't say what his crime was or why he went to jail. ... Weird, right?  
God, I shouldn't go around talking about this. I don't want to be treated like a poet only criminals are in to.

(Fan Letter)

# 강도 변화 – 부정적 뉘앙스 추가

ST: 아아 어쩐다... 다진 야채도 싫은데 (사과 없어요)

TT: Shit. I'm really gonna eat it... Fuck sliced vegetables

(No Apology)

# 강도 변화 – 강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의미 추가

ST: 아아 어쩐다... 다진 야채도 싫은데 (사과 없어요)

TT: Shit. I'm really gonna eat it... Fuck sliced vegetables  
(No Apology)

ST: 피의 일주일이 지나면 피임 날짜나 세는 요새  
젊은것들이라서  
... 나는 보칩니다  
(피의 10일간)

TT: And I'm like the so-called youth  
I count my birth control pills and bitch about everything  
(Ten Days of Blood)

ST	TT
꾸지람 듣겠지	get bitched at
보칩니다	I (...) bitch about everything
야하게 꾸며 나가고	gone out dressed like a slut
늙은 천기	old filthy whore
이 녀석아!	You little bitch!

# 강도 변화 - 거친 표현 추가

ST	TT
아주 평범한 연인 사이	pretty mundane couple
무슨 말일까	what the hell does that even mean?
왜 내가 길게 들어주어야 하나	why do I have to listen to his long-ass story?
이름도 거시기한	What a bullshit name.
몽클한 게	mushy bullshit

# 번역자 인터뷰

- “시에는 intensity(강도) 척도가 있다. 시의 번역가로서 목표는 그 원작의 intensity를 번역으로 끌어내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정확성(accuracy)이나 가독성(readability)보다는 강도에 집중해야 한다”
- “욕설과 같은 단어를 추가하는 이유는 감지하고 상상한 강도 때문이다”
- 책의 전체적인 톤은 이미 강하고 지저분하지만 출판사도 강하고, 마초처럼 거의 남성적인 톤을 원했다.
- (여성에 대한) 욕설 같은 경우에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이런 용어를 선호하는) 작가의 목소리에 맞춰 그 언어를 사용했다.
- 언어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어의 기능 (how language works is more important than what it means)이며, 내용 또는 정확한 문화적 맥락보다 중요하다.



# 결론

- 스타일: 문장 부호, 감탄사, 역동성이 추가됨 구조와 길이  
의 변화, 단어 추가와 말장난과 같은 일부 기능의 누락
- 더 직설적이고 캐주얼한 문체를 추구
- 욕설을 추가해 중립적인 문장을 더 공격적인 문장으로 바  
꿈
- 뉘앙스가 없는 특정 단어들을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들  
로 대체
- 여성에게 불리하거나 지나치게 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  
향
  - ST보다 강렬하게
  - TT에서 남성적 어조 추가

번역자의 생각:  
언어 정확도보다는  
시의 affect와  
intensity가 더  
중요

번역자의 변:  
자신의 해석 +  
출판사 요청

# 연구의 의의와 한계

- 의의

- 한국 번역학사에서 연구가 거의 되지 않은 한국 현대시 번역을 다루고, 한국 여성의 시를 번역하는 앵글로색슨계 남성 번역가를 논했음

- 단순 텍스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언론에 나타난 번역자 인터뷰 확인, 실제 전략에 대한 번역자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심층적 연구 수행

- 한계

- 사례 연구 -일반화 불가능

- 출판사 변수를 포함해 연구를 수행했다면 다면적 연구 가능

메쇼닉의 번역 시학에 비춰 본  
김훈 『칼의 노래』 영어 번역 고찰

이화여대 채경화

# 목차

1. 서론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메쇼닉의 번역 시학

4. 『칼의 노래』

& *Song of the Sword* 소개

5. 『칼의 노래』 리듬 분석

6. *Song of the Sword* 리듬 분석

7. 결론

8. 참고문헌

# 1. 서론

## ✧ 문학번역을 논할 때 주로 사용하는 명제

- 이국의 낯선 것을 자국 문화의 용어로 풀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자화)
- 그러한 낯섬을 작품에 그대로 구현하여 문화적 차이를 강조할 것인가(이화)

## ✧ 한국의 번역 - 분명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식으로 제기

서구를 번역하면서 근대를 시작한 동아시아권 국가 그리고 일본을 거쳐 번역마져 수입)

- 민족문화의 형성을 통한 근대화의 통로 제공 및 민족문학의 기틀 성립에 적지 않은 역할
- 이제는 한국문학을 세계로 널리 알리자는 새로운 시대의 문학적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
- 무엇을 내보낼 것인가 뿐 아니라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필요 (선영아2008:194)

## ✧ 외국의 문학을 들여오면서 신봉했던 번역 전략을 우리의 문학을 내보낼 때 역시 최선의 전략으로 지지할 수 있을까?

- 한국어가 처한 특수적 상황을 먼저 고려할 필요
- “출발어가 주변부의 위치에 있을 때 즉 번역이 주변부에서 중심의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도착어권인 중심부는 번역을 통해 주변부의 문화적 재료를 흡수, 병합하여 자문화의 자양분으로 삼는다. 이 때 번역은 특히 주변부 작가들,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지배적인 미학논리의 범주를 재현하는 데 성공한 변방의 작가들을 “발굴”하는 중요한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선영아 2008:198-199)

➡ 주변부에 위치한 한국 문학은 번역을 통해 고유한 문화적 재료들을 발산하고 한국 문학의 미학을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함

- ▲ 각 문학 작품에 내재한 특수성이 번역되었을 때도 온전히 그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함
- ▲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아름답고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번역 전략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연구의 출발이 된 문제 제기

- ▲ 외국의 문학을 들여오면서 신봉했던 번역 전략을 우리의 문학을 내보낼 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 ▲ 한 작가의 문체가 지니는 특수성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

### ☀ 김애란이 프랑스 문학에 들어오는 방법 (이현희2018)

- ◆ 소설 『달려라 아비』의 두 가지 번역본을 통해 해당 소설이 기존 소설들과 다른 새로운 소설 미학의 지평을 열고 있는 지점을 포착
- ◆ 리듬의 원리와 의미의 원리라는 틀에서 두 가지 번역본 읽기를 시도
- ◆ 김애란 소설 문체의 특징인 리듬과 그 리듬의 울림이 주는 문학성과 미학을 전달할 수 있는 번역에 대한 탐구
- ◆ “문학작품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문학성의 소통을 염두에 둔 번역 실천이야말로 한국문학이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유효하며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현희2018:167-168)

### ☀ 이런 번역 실천을 위해 뛰어난 문학적 특수성이 발산되는 작품을 이국의 언어로 구현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용될 만한 번역 전략에 대한 연구 필요

- 현재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문학번역 전략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짐
- 문학성의 기반이 되는 작가의 문체적 특징을 구현하기 위한 번역 전략 연구 더욱 필요한 시점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메쇼닉의 번역 시학 – 번역은 전체를 파악한 후 전체에서 부분으로, 말의 가치를 파악하는 작업에 토대
- ▲ 텍스트의 특수성과 그 가치에 대한 연구
- ▲ 국내의 메쇼닉 시학 이론에 대한 연구 – 불문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 진행
  
- ✧ 메쇼닉 번역 시학의 주요 이론인 리듬의 시학을 활용한 한국 문학계의 연구
- ▲ 한국어 리듬의 문제 고찰(조재룡 2013), 시의 리듬 고찰(이성혁 2020), 현대시의 리듬에 관한 연구(최석화 2017) 한국 시의 리듬 분석(권혁웅2013a/b; 이해원2012; 장석원 2011, 2012, 2014, 2015, 2016, 2018; 정유선 2018; 한병인 2017, 2019)
  
- ✧ 한국 문학 번역에 메쇼닉의 시학을 적용한 연구는 드문 실정
- ▲ 리듬의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한국 『햄릿』 번역에 나타난 시적 리듬의 재활성화」(임승태 2020), 「소설 『토지』와 변용작들의 리듬분석을 위한 시론-양리메쇼닉의 리듬 이론을 중심으로」(최유희 2011) 정도
  
- ➡ 첫째: 메쇼닉의 번역 시학의 이론 중 문학번역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실천적 이론으로 탈중심화 번역론 소개
- ➡ 둘째: 메쇼닉 이론의 핵심인 리듬의 시학을 실제 문학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작품의 분석을 통해 접점과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함.

### 3. 메쇼닉의 번역 시학 (1)

☀ 『시학을 위하여 II』 *Pour la poétique II: Épistémologie de l'écriture Poétique de la traduction*

- ✦ 1973년 발표. “에크리튀르의 인식론/번역의 시학”이라는 부제하에 서른 여섯개의 ‘제안들’로 구성
- ✦ 저서 발표 후 메쇼닉은 직역과 의역으로 대변되는 기계적인 이분법, 프랑스 및 서구의 자민족 중심주의 번역에 대한 신랄하고 근본적인 비판을 바탕으로 번역학계에 새로운 논쟁을 촉발(조재룡 2019a: 42).
- ✦ “번역에 이론이 존재해야 한다면, 번역이 이론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의미 이론’이나 ‘해석 이론’이 아니라, “시학 사이의 관계에서 모색되는 이론이어야 한다.”
- ✦ 번역의 시학은 이론적 실천. 실험적 시학번역의 “시학”이 이론적 성격을 지닐 수 있는 것은 번역이 ‘이론적 실천’이라는 전제에서만 가능
- ✦ 번역의 시학은 원문의 특수성을 다른 언어의 특수성으로 활성화하고 재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이론과 이 이론의 실천을 의미하며, 이 양자의 불가분한 관계를 전제한 활동에 대한 고찰

➡ 메쇼닉은 “실험적 시학”이라고 언급

☀ ‘에크리튀르’ 는 흔히 ‘글쓰기’로 번역되곤 하는데 이보다는 글의 실천이나 “말과 삶의 동질성”으로부터 생산된 “의미-형식”의 “특수한 활동”으로 정의된다(조재룡 2019: 42)



### 3. 메쇼닉의 번역 시학 (2)

☀ 세 가지 번역 유형 -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세가지 번역(직역-의역식의 이분법으로 번역의 유형을 대변하지 않음)

#### ① 소개-번역(traduction-introduction)

- 소개나 도입을 목적으로 시도된 번역, 소개 차원의 번역은 도착어의 문화적인 점유를 드러내거나 그 필요성에 의해 진행된 번역
- 도착어 독자들의 수용을 우선시하여 전파를 목적으로 진행한 번역, 모국어로 쓰여진 것과 같은 투명한 번역, 원문의 말을 매끄럽게 다듬는 의미 중심의 번역, 주해와 주석을 통해 번역 대상 텍스트를 도착어 문화권에 널리 유포하고 임히도록 시도하는 번역

#### ② 번역-번역(traduction -traduction)

- 번역만을 위한 번역으로 텍스트의 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번역 전반을 의미
- '번역-번역'은 주로 정보의 운반과 이전, 혹은 이식을 목표로 삼는 번역이며 원문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모사하는 번역
- 원문의 신성화를 통해 문학-작품-텍스트의 지위가 번역에 대해 갖는 우월성과 원문에 대한 충실성에 집착하는 직역

#### ③ 텍스트-번역(traduction -texte)

- 텍스트(원문/번역문)의 작용을 고려한 번역. 두 언어-문화의 관계와 두 언어-문화 사이의 탈중심을 통한 번역으로 출발어 문화 전반과 도착어 문화 전반 사이에 본격적인 상호침투를 전제
- 텍스트-번역에서 옮겨야 하는 것은 랑그나 기호가 아닌 바로 텍스트의 작용 그리고 이를 번역문의 작용으로 살려내는 번역
- 출발어 텍스트가 지닌 텍스트로서의 가치, 즉 문학적인 것이나 시적인 것으로 여길 만한 지점들의 작용을 포착하고 이 가치를 도착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도착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언어 영역이 개척되며 이는 곧 번역 안에서 번역에 의해 신어 생성이나 새로운 현대성의 관계가 창출될 수 있음 ⇒ 이런 의미에서 텍스트-번역은 특수성에서 특수성으로의 번역이라 칭할 수 있음

➡ 번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 문학 작품을 문학 작품으로, 소설을 소설로 시를 시로 번역하는 것

➡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텍스트-번역이며 이는 탈중심적 번역의 핵심

### 3. 메쇼닉의 번역 시학 (3)

#### ☀ 번역의 탈중심

- 번역에는 번역가의 손길, 즉 번역이라는 흔적이 남아야 함
- 번역이 도착어의 자연스러움을 핑계로 출발어의 고유성을 지워내는 작업이 되면 안됨 (가독성이라는 일견 합리적 이유)
- 번역이 출발어-문화의 고유한 흔적을 지우는 순간, 번역은 '병합'의 길로 빠지게 됨
- ➡ “번역은 작가의 사고, 사상을 문자라는 기호로 전환한 즉 원문이라는 한번 깨어진 도자기를 다시 이어 붙인 것과 같이 원문의 흔적을 통해 원문의 특(수)성을 추적할 근거를 만들어내야 한다”

#### ☀ 번역은 “두 가지 시학들의 상호작용, 즉 탈중심”

- 모국어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번역이 성취 - 모국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번역
- 번역에는 두 언어가 충돌하면서 생겨나는 중심 이탈이 필연적으로 발생
- 이런 충돌로 발생하는 중심 이탈을 통해 두 언어, 그 랑그의 친화력을 조절해내는 행위가 번역
- ➡ ‘탈중심’이라는 용어로 메쇼닉이 설명하려고 했던 번역의 특성

- 번역은 텍스트들이 부딪치면서 생겨나는 모종의 관계, 그 중심이 이탈하며 발생하는 두 언어 사이의 친화력을 모색하는 작업
- 번역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호를 전달하는 작업이 아니라 번역가의 리듬적 상황에 따라 무한 창조 가능한 새로운 글쓰기 과정
- 번역한다는 것은 랑그를 옮기는 작업이 아닌 출발어와 도착언어 간에 이루어지는 끝없는 대화, 즉 언술을 번역하는 것

- ➡ 번역을 단순한 원본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메쇼닉의 탈중심 번역론은 병합적 번역에 반대 ⇒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보편 이해라는 구실아래 소멸시키지 말자는 바램 (최영주2004: 361).

### 3. 메쇼닉의 번역 시학 (4)

#### ☀ 리듬의 시학

- 작품을 **언술(discours)**로 여기는 문학성 연구
- 낱말이 '문장'속에서 다른 낱말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가치를 발휘하듯 작품 역시 작품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 의미 생성에 관여하는 체계로 인식되어야 함
- 이 체계를 전제하는 개념이 바로 '언술' ⇒ **'리듬'은 '언술 분석'에 요청되는 구체적인 방법이자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개념**

#### ☀ 리듬- '흐름/흐르다' 라는 어원에 충실한, 즉 통사의 조직과 배치, 구와 절의 양태, 어법의 크고 작은 단위, 말들의 조직과 배치

- 문학과 시에서의 리듬 - 텍스트를 구성하는 상이하고도 다양한 언어요소들이 재현되는 흐름이나 운동을 의미
- 리듬은 감각적이고 변화 가능하며 우발적인 출현으로만 드러남
- 리듬은 낱말들의 조직이자, 그 조직을 관장하는 것
- 리듬은 시에만 존재하지 않음 - 리듬은 언어의 사태로 모든 언어, 모든 텍스트에 존재하며 작동

#### ☀ 리듬은 텍스트의 특수성

- 언술 속에서 모든 요소들이 함께 상호의존적으로 의미를 창출하듯 리듬은 말하는 방식 자체이며, 의미 생성과 연관되고 결부
- 리듬은 형식이 아니며 형식과 의미를 분리하지 않음 - '의미 생성', '작용으로서의 의미'인 리듬은 형식을 따로 떼어놓지 않음
- 리듬은 형식, 의미에 모두 관여하며 의미와 불가분의 관계
- 낱말에 앞서 언술 전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 우선 사항
- 원문의 리듬이 형식과 의미 생성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한 리듬 분석 우선 수행 후 이를 번역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천 필요

- ☀ discour -담론, 언술(디스쿠르). 메쇼닉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며 여기서는 프랑스어 발음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언술'이라는 한국어가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언술로 표기한다.

### 3. 메소닉의 번역 시학 (5)

☀ 조재룡(2013)이 제시한 메소닉의 리듬 분석의 핵심

- 첫째, 리듬은 말의 지형도이며 이 지형도에서 그 거점은 강세
  - 둘째, 리듬에서 강세는 통사의 조직과 연관되며 통사 구조를 헤아리는 작업이 리듬 연구의 초석
  - 셋째, 리듬은 또한 프로조디의 조직이며 프로조디의 조직이 리듬의 지표
  - 넷째, 통사의 조직과 프로조디의 조직이 텍스트의 의미를 관장
  - ➡ 의미가 발생하는 순간이 바로 리듬이 개입하는 순간이며 의미생성과 불가분의 상태에서 논의되는 리듬은 존재하지 않음
- 
- ✦ 문장의 질서인 통사론이 의미의 주관적 강조라는 리듬 분석에 대한 첫번째 이해의 대상
  - ✦ 통사론에 기반을 둔 템포와 프로조디가 강세의 보조장치로 기능(장석원, 2015: 261).
  - ✦ 리듬의 시학 이론에서는 모음과 자음의 반복적 응축과 응결이 리듬 조직화에 있어 중추적 역할
  - ✦ 리듬은 단순히 언표를 보조하는 부차적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의미체

## 4. 『칼의 노래』 & *Song of the Sword* 소개

### ※ 『칼의 노래』

- 김훈이 2001년 발표한 역사소설. 시대의 명장이순신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이순신을 함께 표현하여 사회안에서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담아낸 작품. 2001년 제21회 동인문학상 수상
- 작가와 작가를 구분하는 잣대 중 하나인 문체 → 김훈은 2000년대 한국 문단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라는 찬사
- ※ 김훈의 문장 스타일, 문체의 세가지 특징
- 첫째, 수사적 군더더기를 빼고 가능한 주어와 동사로 구성
- 둘째, 최적의 문체 장단을 찾아 주제를 확실히 드러내는 자기만의 문체
- 셋째, 현미경 같은 사실주의로 칼날 같은 취재로 서술
- ※ 작품 번역의 의의 - 역사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인간 심연의 고뇌를 다루었다는 주제는 특수한 주제가 보편적 주제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문체적 특수성을 지닌 작품
- ▶ 무엇을 내보낼 것인가와 이러한 특수성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리듬의 시학을 토대로 한 번역 분석 가치 충분
- 스페인어 (2005), 일본어(2005), 프랑스어(2006) 번역 출간, 2011년 독일어 번역본이 대산문학상 번역상 수상
- 영어 번역 - 몇몇 출판사와 계약 진행 중

### ※ *Song of the Sword*- An excerpt (Chapter1-6)

translated by Jung Ha-yun

- 2020년 한국문학 작품과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는 문학 잡지 *Azalea* 2020년13호에 정하연의 발췌 번역본(1장-6장) 실림
- ▶ 리듬, 보이스, 톤, 통사 구조, 프로조디,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느낌을 빈번히 강조한 정하연의 번역관이 리듬의 시학과 상당부분 궤를 같이 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을 만 함
- 📖 *Azalea: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 Culture* (아젤리아: 한국문학 및 문화)
  - 2007년 처음 창간하여 매년 발행되는 문학 잡지로 영어권 독자들에게 한국 문학 홍보 목적
  - 하와이 대학 편집부에서 발간하며 고려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한국 문학 번역원이 지원
  - 현대 한국 작가 및 시인의 작품 번역과 미국의 한국학 교수들이 기고한 에세이 및 서평이 실리며 신진 작가와 유망한 번역가를 영어권에 문학 세계에 소개하는 역할 담당  
⇒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한국 문학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

## 5. 『칼의 노래』 리듬 분석 (1)

### ☀ 작품 분석에 앞서

- 영어와 한국어 - 통사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문장의 억양이나 강세를 두어야 하는 부분 상이함 ⇒ 한국어 원문 분석한 방식을 그대로 영어 번역문에 적용하기에는 무리
- 중요 지점 - 한국어 원문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이 문장안에서 구현되고 이것이 작용하여 의미와 형식에 미치는 효과가 영어 번역문에서도 그 언어를 통해 그 언어 구조에 맞게 구현되어 의미와 형식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원문과 번역문에 대한 분석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전제)

### ☀ 강세: 리듬 분석의 중요한 지점

- **한국어 - 음절박자언어(syllable-timed language). 영어 - 강세박자언어(stress-timed language)로 분류**
- 영어는 강세가 문장의 억양을 나타내며 주로 내용어(명사, 동사, 형용사, 의문사, 부정어, 등), 즉 문장에서 밝히고자 하는 의미에 관여하는 단어에 오게 됨.
- 의미 구성에는 큰 의미가 없으나 굴절어인 영어 문법의 특성으로 인해 문장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단어인 기능어(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한정사, 조동사 등)에는 강세가 오지 않음

👉 리듬의 강세는 통사 조직과 연관되기 때문에 통사 구조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언술이 만들어 지면서 배치된 프로조디 역시 리듬 분석에서 한 축을 담당

➡ **통사구조와 강세, 프로조디를 통해 언술 내에서의 단어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이들이 전체적인 의미 구조와 내용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

## 5. 『칼의 노래』 리듬 분석 (2)

### \* 첫번째 문단

- 소설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한산도 즉 섬 묘사. 문단 전체의 주체 즉 서술의 중심은 '섬'
- 서사적인 배경 서술에서 문장 호흡이 점점 길어지면서 시각이 가까운 곳에서 점차 퍼져 먼 곳으로 점차 이동하는 움직임을 단문 → 중문 → 복문의 전개로 드러냄

### ①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 \* 통사 구조

- 꽃이 (주어) 피었다(동사) - 최대한 주어 동사의 배치를 가깝게 하는 단 호흡의 문장
- 섬마다- 여러 조사 중에 ~마다 라는 조사 사용 (예, 예는~ 이 아닌) → 모든 섬을 아우르는 의미와 버려진 곳이라는 쓸쓸한 의미 부각
- 다음 단어인 '꽃' 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과 버려진 섬 이라는 처연한 대비
- 형용사 "모든" 대신 문장의 간결성과 음절 수의 최소화 면에서 효과적인 조사의 사용으로 속도를 높이는 효과

### ② **꽃 피는** 숲에 **저녁노을이 비치어**, 구름처럼 부풀어오른 **섬들은 바다에 결박된 사슬을 풀고** 어두워지는 수평선 **너머로 흘러가는** 듯싶었다.

- 중문으로 길이가 길어지면서 호흡이 조금씩 늘어나며 이에 맞게 주어와 동사 사이의 간격도 첫번째 문장에 비해 넓어짐

#### \* 통사 구조

- 큰 구조- 섬들은 (주어)+사슬을(목적어)+풀고(동사 1)+흘러가는 듯싶었다(동사2)
- 세부 구조 - (꽃 피는 숲에 - 수식구) 저녁노을이 (주어) 비치어(비친다- 동사) 이후 쉼표 ⇒ 호흡을 잠깐 끊고 시각 이동 효과.
- 해질녘 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표현을 우선 배치 이 후 주체인 섬을 부각시키며 첫번째 동사구에서는 의인화하여 표현, 마지막 동사구에서는 다시 처음 언급한 구름에 빗대어 흘러간다고 비유
- 첫번째 문장 마지막에 서술한 주어 동사인 **꽃이 피었다** ⇒ 두번째 문장 첫 머리에 간결한 형태로 배치하면서 반복에 의한 프로조디 형성

## 5. 『칼의 노래』 리듬 분석 (3)

③ 물으로 건너온 새들이 저무는 섬으로 돌아갈 때, 물 위에 깔린 노을은 수평선 쪽으로 물려가서 소멸했다.

\* 통사구조 (복문) - 시간을 나타내는 절을 앞쪽에 배치한 복문구조로 문장 서술 주체인 노을을 뒤에서 강조

● 부사절: (물으로 건너온 새들이(주어) + (저무는 섬으로) 돌아갈 때(돌아가다 - 동사), 심표를 찍어 휴지 형성

● 주절: (물 위에 깔린) 노을은 (주어) + (수평선 쪽으로) 물려가서 소멸했다 (물려가다 + 소멸하다 - 동사)

\* 프로조디

● 단어 첫 부분에 'ㄹ, ㅍ' (물, 물, 또한 중간에 저무는 의 '무') 배치

●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 '~으로' - 앞 절에는 '섬으로', 주어절에는 '쪽으로' 가 나란히 다섯번째 단어에 배치

● 주어와 동사에 주로 강조점이 찍히는 한국어의 특성의 측면에서 '물려가서 소멸했다' 부분에서는 자음인 'ㄹ'이 배치 나란히 네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 두번째 글자에 'ㄱ'가 배치 → 두 단어가 한 단어처럼 빨리 읽히며 호흡도 빠름.

④ 저녁이면 먼 섬들이 박모(薄暮) 속으로 불려가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먼 섬부터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는 것이어서, 바다에서는 늘 먼 섬이 먼저 소멸하고 먼 섬이 먼저 떠올랐다.

\* 통사구조

● 복문 ⇒ 두 개의 동등한 절이 종속절에 포함되면서 전체 절의 개수가 3개로 늘어남

● 부사절 1 (저녁이면 - 시간 조사 '면') 먼 섬들이(주어) + (박모속으로 - 장소 조사 '~으로') 불려가고 (불려가다-동사)

● 부사절 2 (아침에 떠오르는 - 시간 배경) 해가 (주어) + (다시 세상에 - 장소 (~으로 가 아닌 앞부분과의 일치를 위해 ~에 사용) 돌려보내는 것이어서 (돌려보내다- 동사) - 시간, 장소에 대한 내용을 절 안에 모두 포함하고 통합하여 약한 인과로 연결

● 주어절(바다에서는 늘) 먼 섬이 (주어) + (먼저) 소멸하고 (소멸하다 - 동사) + 먼 섬이(주어 반복) + (먼저) 떠올랐다(동사)

\* 프로조디

● 부드러운 느낌의 자음 'ㄹ' 'ㅍ' 이 (면, 먼, 섬, 모,) 'ㄱ' (녁, 려 - 불려가고, 돌려보내는, 멸)의 반복적 배치

● '떠오르는' 을 동일 문장에서 반복하고 '소멸하고' 의 반복적 배치는 앞 문장과의 연결성 드러냄.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으로' ⇒ 시각의 이동. 마지막 문단 → 동일 단어 반복으로 다시 문단 서술의 주체인 섬으로 돌아와 '먼 섬' 을 강조하고 마무리



## 6. *Song of the Sword* 리듬 분석 (1)

✧ 번역문 첫번째 문단

① Flowers blossomed on each deserted island.

① 내용어 flowers, blossomed, deserted, island 네 단어에 강세

① 강세가 오는 단어 중심으로 문장을 분절 ⇒ Flowers / blossomed on each / deserted / island. - 원문의 네 음절과 동일

● 강세가 오는 부분으로부터 밝혀지는 의미의 중요한 내용은 꽃, 피다, 버려진, 섬

● 원문과 동일한 의미의 순서를 위해 이 문장을 On each island, flowers blossomed. 로 번역한다면 원문 순서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할 수도 있음 ⇒ 그러나 한국어의 강세는 서술부, 즉 문장 말미에 놓이는 반면 영어는 구조상 주어 동사가 문장 앞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장 전면에 서술의 주체인 flowers blossomed를 앞으로 내세워 확실한 이미지 형성

● 통사 구조로 발생하는 프로조디 ⇒ blossomed, deserted 와 island 단어에 포함된 'd' 사운드

● The islands billowed like clouds as the evening sun lit the flowering trees. It seemed as if they might slip free of their moorings and drift beyond the darkening horizon.

② 원문의 서술 주체는 섬 ⇒ 번역문에서는 첫 단어의 강세를 고려하여 섬을 전면에 내세우는 서술로 섬에 주의 집중

● 단어 billow / 부풀어오르다 ⇒ 한국어 소리와 영어의 첫 소리가 동일 - 시각적 이미지, 낱말이 다른 낱말과 작용하고 의미 생성에 영향

● 첫번째 문장 프로조디는 's', (islands, clouds, as, trees) ~ing (evening, flowering)

● 원문에서 강조한 꽃 피는 숲 flowering trees 로 번역하여 원문 이미지에 맞는 수식구조와 단어(숲을 trees 로)의 적절한 사용

● 강세에 따른 분절 - 두 문장으로 번역 그러나 원문의 발음에 따른 음절 분절 수와 거의 흡사

• The islands / billowed like / clouds as the / evening sun (수식어 구조) / lit the / flowering trees.(수식어 구조) / It seemed / as if they / might slip / free of their / moorings and / drift beyond the / darkening horizon.

## 6. *Song of the Sword* 리듬 분석 (2)

- ③ By the time the birds returned from this shore to their roosts on the dimming islands, the sparkling sunset had already hurried off to the horizon and died.
- 강세 중심 분절 ⇒ 원문의 분절수와 거의 유사
  - ~때: 한 단어 접속사인 when이 아닌 접속사 대응 표현 by the time 사용 ⇒ 문장이 거듭될수록 점점 확장되어 가는 느낌 및 전체 문장 길이의 길어짐 고려. 원문과 동일 위치에 심표 표기 ⇒ 호흡을 가급적 동일하게 유지
  - 물 위에 깔린 노을 “sparkling sunset” 원문에 비해 다소 간결한 두 단어로 표현 ⇒ ‘s’ 사운드의 반복 프로조디 시각적, 청각적인 느낌 모두 전달. ‘h’ (had, hurried, horizon) 사운드 반복
  - horizon 과 died 끝소리 → 각각 공명하면서 길게 달히는 소리로 문장 마무리
- At dusk, the remote islands were the first to be drawn into the shallow twilight and, at dawn, they were the first to be returned to the world by the rising sun. Out at sea, it was always the most remote islands that died first and came back first.
- 저녁과 아침이라는 서사적 대구 구조 및 동일 단어 반복을 통한 리듬 ⇒ 문장이 길지만 빠른 읽기 가능
  - 원문의 접속사 절 처리를 번역문에서는 두 문장으로 나누어 원문 주절의 첫 단어인 “바다에서” 동일 위치에 배치
  - shallow twilight 바로 뒤 문장의 dawn 에 연결 → 절묘한 시각적 이미지 창출에 효과적
  - 강세 음절에 따라 분절 ⇒ 원문에 비해 다소 음절 수가 늘어났으나 영어의 기능어인 관사, 대명사, 한정사 등으로 인한 것
  - 원문의 반복으로 인한 강조 효과 구현을 위해 영어의 특수 구문 형태인 it is ~ that 강조구문 사용 ⇒ 번역문에서도 다시금 의미의 주체가 섬으로 맞춰지는 원문과 동일한 의미 강조 효과 살리고자 함
  - ‘먼저’ 라는 부사어를 first 의 반복으로 동일하게 구현

## 6. *Song of the Sword* 리듬 분석 (3-1)

사례	ST	TT
1.	<p>나는 <u>적의 적의의</u> 근거를 <u>알 수 없었고</u> <u>적</u> 또한 내 <u>적의의</u> 떨림과 깊이를 <u>알 수 없을</u> 것이었다.</p> <p>서로 <u>알지 못하는</u> <u>적의가</u> 바다 가득히 <u>팽팽</u>했으나 지금 나에게는 <u>적의만이 있고</u> 함대는 <u>없다</u>.</p>	<p>I could not <b>fathom</b> the source of the <b>enemy's rancor</b>, and the <b>enemy had no way of knowing</b> the <b>quivering depths of my own rancor</b>.</p> <p><b>The sea</b> was taut, swollen with a <b>rancor</b> that neither side could hope to penetrate. But that was all I had for the time being—no fleet, only <b>my rancor</b>.</p>
2.	<p>나는 살기를 <u>바라지</u> 않았다. 죽음은 <u>절벽처럼</u> 확실했다.</p> <p><u>죽어야 할 것들을</u> 다 죽여서, <u>세상이 스스로</u> 세상일 수 있게 된 연후에 나는 나 자신의 <u>한없는</u> 무기력 속에서 죽고 싶었다.</p>	<p>I <b>no longer wished</b> to live. Death was <b>ascertainable</b> as a cliff. I <b>longed to drown in</b> my own bottomless torpor, where all that must <b>be killed had been killed</b> and the world <b>had become a world in and of itself</b>.</p>
3.	<p>전선은 통제 <u>불능</u>으로 확산되었다. 전선과 후방은 구분되지 않았다.</p> <p>아군 병력은 <u>집중</u>, 분산 <u>양쪽이 모두 불가능했다</u>. 도원수 권율은 이 <u>불가능</u>을 잘 알고 있을 것이었다. 모든 <u>불가능</u>은 <u>확실했다</u>.</p> <p>가장 <u>확실한</u> 운명이 가장 모호한 풍문으로 연안과 내륙에 퍼져나갔다.</p>	<p>The battle line slipped into <b>chaos</b>. It was no longer <b>possible</b> to distinguish the front from the rear. Our forces were unable to <b>either converge or disperse</b>. Marshal Governor Kwon Ryul would have been well aware of the <b>dilemma</b>. Only <b>impossibilities</b> were <b>clear</b>. <b>A shadowy rumor of our seemingly inevitable fate</b> spread down the coastline and across the land.</p>
4.	<p>내가 <u>적을</u> <u>의길 수 있는</u> 조건들은 <u>적에게</u> 있을 것이었고, <u>적</u>이 나를 <u>의길 수 있는</u> 조건들은 <u>나에게</u> 있을 것이었다.</p> <p>임진년 개전 이래, 나는 <u>그렇게</u> 믿어왔다. <u>믿었다</u>기보다는, <u>그렇기</u>를 바랐다.</p>	<p>In battle, the enemy would hold the key to my victory, and for the enemy, the key would lie in my two hands. That had been my belief since the declaration of war in the year Imjin. <b>Or should I say that had been my hope, a hope that nearly suffocated me.</b></p>

## 6. *Song of the Sword* 리듬 분석 (3-2)

<p>5.</p>	<p>가족 친척이 죽었고 함께 술 마시며 음풍농월한 <u>자들과</u> 편지를 주고받은 <u>자들과</u> 그들을 두둔한 <u>자들과</u> 그들을 욕한 <u>자들을</u> 욕한 <u>자들이</u> 모조리 <u>끌려와서 베어지거나 으깨졌다.</u></p> <p>매일매일 가마니에 덮인 시체들이 <u>시구문</u> 밖으로나갔다. 시체를 묻어준 <u>자들도</u> <u>끌려와서 베어졌다.</u></p>	<p>Family members and kindred spirits of these two men, those who drank and celebrated with them, those who had exchanged letters with them, those who defended them, and those who criticized their accusers had all been taken away and <u>slashed or crushed.</u></p> <p>For days on end, corpses were wrapped in straw mats and borne away through one of <u>thecity's gates reserved for the dead.</u> Those who buried the corpses were <u>brought in and executed in turn.</u></p>
<p>6.</p>	<p><u>헛것은</u> 칼을 받지 <u>않는다.</u> <u>헛것은</u> 베어지지 <u>않는다.</u></p>	<p>A <u>phantom</u> cannot be pierced. A <u>phantom</u> <u>swallows</u> the <u>sword.</u></p>
<p>7.</p>	<p><u>어디를</u> 조준해야 하는지, <u>표적은</u> 흔들렸다. 바람은 계통없이 불어댔다. 화살은 거의 맞지 않았다. 어두워져서 사정에서 내려왔다. <u>표적은</u> 비어 있었다.</p>	<p><u>Where was I to aim?</u>The <u>target</u> seemed to <u>sway.</u> The <u>wind</u> <u>whirled</u> about <u>with no sense of direction or order.</u> My arrows could not find their <u>target.</u> As the sky grew dark, I retreated from the archery field, <u>the target</u> left <u>unscathed.</u></p>
<p>8.</p>	<p>나는 임금이 <u>가여웠고</u>, 임금이 <u>무서웠다.</u> 가여움과 무서움이 <u>같다</u>는 것을 나는 알았다.</p> <p>임금은 <u>강한 신하</u>의 힘으로 다른 <u>강한 신하</u>들을 죽여왔다.</p>	<p>I <u>pitied</u> the king, <u>and at the same time,</u> I <u>feared</u> him. In my experience, pity and fear weretwo sides of the same <u>coin.</u> The king had used the <u>might</u> of his most <u>powerful subjects</u> to destroy other equally <u>powerful subjects.</u></p>

## 6. *Song of the Sword* 리듬 분석 (4)

### ※ 1번 사례

- 원문: 자음의 프로조디 뿐 아니라 동일 어휘의 반복에서 오는 프로조디 형성
- 자연스러운 리듬의 형성뿐 아니라 전체 문장의 속도감이 매우 빠름. 마지막 문장의 있고 ~ 없다. 는 대조를 통해 의미 강조
- 번역문: 단어 반복의 프로조디, 단어 선택, 표현 변조, 문장 분절로 인한 리듬감
- 첫번째 문장의 fathom, rancor 등은 통상적 사용 가능한 단어에 비해 의미가 매우 깊어 한 인간의 깊은 고뇌를 잘 표현
- 적에 대해서는 동사의 변주를 달리하여 주인공 보다 그 수위가 깊지 않음을 드러내어 주인공의 심적 괴로움을 극대화
- 원문의 “떨림과 깊이” 명사, 명사로 이루어진 부분을 “quivering depths” 수식어구 사용으로 rancor (적의)의 의미 강조
- “적의만 있고 함대는 없다” 를 통해 강한 적의 표출을 구현 - 서술부 마지막에 rancor 를 배치

### ※ 2번 사례 - 간결한 서술 (속도감) - 속도감 유지를 위해 원문과 거의 동일한 음절로 구성

- 두번째 문장 주절을 앞쪽에 배치하여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더 중요하게 다루었고 관계사 절에서는 원문의 반복 그대로 구현
- ‘s’ 의 프로조디 - 단어로 특히 “스스로” 를 in itself 와 of itself 두 표현을 중첩적으로 사용하여 ‘s’ 프로조디를 구현

### ※ 4번 사례

- 원문: 반복되는 동일 통사 구조가 핵심 동일 어휘를 통한 프로조디
- 번역문: 완전한 변조 - key to my victory, 또는 lie in my two hands 를 사용해 클리셰로 느껴지기도 하는 비유 표현의 대구, 반복 배치로 의미의 상쇄 및 마지막 문장 수사적 표현을(should I say that~) 사용으로 강조

### ※ 5번 사례

- 원문: 반복 표현으로 인한 속도감. “베어지고 으깨지다” 와 같은 수동 표현으로 어쩔 수 없는 처참한 상황 드러냄
- 번역문: 마찬가지로 반복의 효과로 속도감을 높였고 다양한 단어의 변주

### ※ 6번 사례

- 번역문: 동일한 음절 리듬으로 속도감을 맞추고 원문의 동일 어휘 반복 구현 및 프로조디 형성
- 두번째 문장 - 번역문에서 부정문을 오히려 긍정문으로 표현하면서 헛것의 강한 힘 전달

## 7. 결론

### \* 연구의 한계

- 메쇼닉의 리듬의 시학 이론은 이미 번역된 작품에 대한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나아가 번역가가 실제 번역 실천 시 이 이론을 참고하여 원문을 분석하고 원문 텍스트의 작용을 번역문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참고할 수 있는 이론이 될 수 있을 것
- 따라서 번역 텍스트의 분석뿐 아니라 실제 번역 실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필요

### \* 연구의 의의

- 리듬의 시학 이론을 적용한 한국 문학 작품 번역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시도
- 원문과 번역문 모두에 대해 시도한 리듬 이론 분석

### \* 결론

- 문학 텍스트의 특수성 번역: 메쇼닉이 밝혔듯 번역이 단순한 랑그의 문법적 전환 가능성이 아니라 언술 사이에서 행해지는 주체성의 미끄러짐(glissement)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번역 전반, 즉 번역(하기) 실천, 그 실천으로 파생된 결과물에 대한 진정한 성찰. 본 소설의 분석을 통해 리듬의 시학을 적용한 번역 실천 가능성이 충분함을 확인.
- 원문에 대한 깊은 읽기를 바탕으로 언술 사이에 켜켜이 쌓인 리듬과 의미의 구조 그리고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이국의 언어로 된 언술과 언술의 상호작용으로 고스란히 구현하는 것의 중요성
- 문학 텍스트의 번역: 단순한 의사소통 차원이나, 정보, 지식 전달의 차원을 넘어선 곳에 위치하므로 문학 텍스트의 특수성을 전달할 수 있는 번역하기의 실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시도 필요
- 한국어 독자가 문학 작품을 만나 느꼈던 감동과 울림을 외국의 독자 역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번역
- 메쇼닉의 번역 시학이 문학 텍스트가 지닌 특수성에 대한 번역 실천의 핵심 이론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

## 8. 참고문헌

- 선영아 (2008) 「동화(同化)의 미학과 차이(差異)의 윤리-문학번역의 두 가지 명제」 『번역학연구』 29(4): 193-214.
- 이현희 (2018) 「한국문학이 프랑스에 들어오는 한 방법에 대하여-김애란 「달려라, 아비」의 두가지 번역 읽기」 『비교한국학』 26 (1): 143-172.
- 임승태 (2020) 「한국 「햄릿」 번역에 나타난 시적 리듬의 재활성화」 『한국예술연구』 29: 201-224
- 장석원(2015) 「박목월 시의 리듬 - 강세 중심의 리듬 논의를 위한 시론」 『한국시학연구』 43: 261-283.
- 장석원(2016) 「백석 시의 통사와 리듬」 『한국학연구』 51: 339-360.
- 정유선(2018) 「이용악의 시, 「풀벌레소리 가득 차 있었다」의 리듬」 『한국근대문학연구』 37: 293-323
- 조재룡(2007) 「번역과 시학-문학번역의 중요성과 관건들」 『프랑스학연구』 39: 245-268.
- 조재룡 (2013) 「리듬과 의미-프랑스어 리듬의 전제 조건에 비추어본 한국어 리듬의 문제들」 『한국시학연구』 36: 97-142.
- 조재룡(2013) 「앙리 메쇼닉의 리듬 이론(1회)」 『문학들』 65: 270-286.
- 조재룡(2019a) 「앙리 메쇼닉: 시학-주체-번역-예술(5회) 번역(행위)의 시학/번역과 시학(1)」 『계간 모:든시』 7: 41-69.
- 조재룡(2019b) 「앙리 메쇼닉: 시학-주체-번역-예술(6회) 번역(행위)의 시학/번역과 시학(2)」 『계간 모:든시』 8: 46-95.
- 조재룡(2019c) 「앙리 메쇼닉: 시학-주체-번역-예술(7회) 번역(행위)의 시학/번역과 시학(3)」 『계간 모:든시』 9: 48-62.
- 조재룡(2019d) 「앙리 메쇼닉: 시학-주체-번역-예술(8회) - 리듬(rythme) 이론의 창시자(1)」 『계간 모:든시』 11: 52-67.
- 최영주 (2004) 「메쇼닉 시학의 주요 쟁점들」 『한국프랑스학논집』 46: 345-372.
- 최유희 (2011) 「소설 「토지」와 변용작들의 리듬분석을 위한 시론-앙리메쇼닉의 리듬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0(3): 39-60
- Meschonic, H. (1973) *Pour la poétique II: Épistémologie de l'écriture Poétique de la traduction*. Paris: Gallimard.

### 분석 작품

- 김훈 (2021) 「칼의 노래」 파주: 문학동네
- Jung Ha-yun (2020) *Song of the Sword An Excerpt* (Chapter 1-6).  
Azalea: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 Culture, Vol. 13: 23-51



**감사합니다.**



[한국통역번역학회]

# 판소리 <Mother> 가 영어로 **창작**되는 과정

---

2022. 03. 26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승연

# 연구배경

판소리를 영어로 불러본다면??

출처: MBN 조선판스타



- ✓ 외국인도 알아 들을 수 있어 신세계
- ✓ 우리 소리를 세계화 할 수 있는 기회

VS

- ✓ 국악 번역은 좋았으나 표현이 부족
- ✓ 공명의 아쉬움

# 연구배경

## ● 판소리 (Pansori)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5호이자, 2003년 11월 7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UNESCO)로부터 '인류구전·무형유산걸작'에 선정되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장미영 2010: 267).

### 세계화 시도

- ✓ 전라북도와 문화관광부 주체, 판소리 다섯 바탕(수궁가,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 흥보가)의 사설 영어 버전 출판 / 공연 자막화

- ✓ LA한국문화원(KCCLA), COVID-19 팬더믹 이후 영상으로 영어 자막과 함께 판소리 눈대목 위주로 소개

출처: KCCLA Youtube



# 연구배경

- 판소리의 세계화 – 최동현(2008: 258-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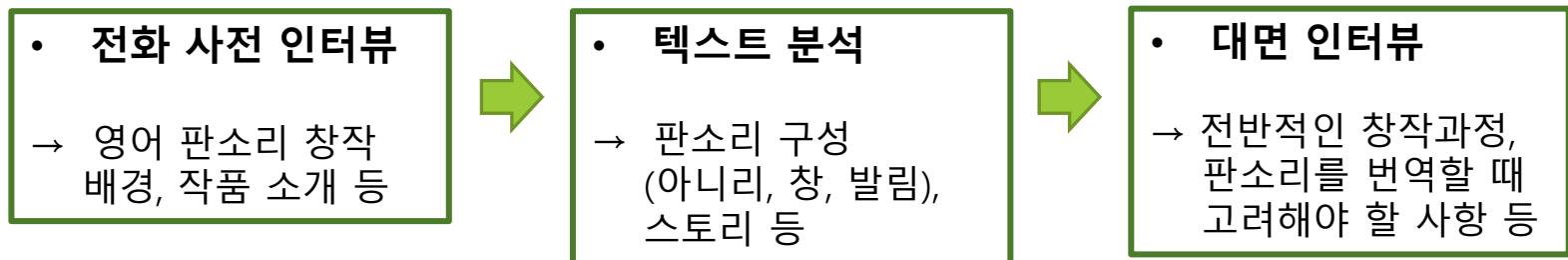


**판소리** → 창(唱)이 가능하도록 번역된 사례는 드뭄  
→ 사설과 선율이 있는 성악

# 연구목적

- 실제 **창(唱)이 가능**하도록 영어로 번역된 판소리 작품을 분석
  - 1) 영어로 창작되는 과정,
  - 2) 판소리를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 번역가가 고려해야 할 사항

## ● 연구절차



# 분석 텍스트

## ● Mother / Mother of Love

- ✓ 영어로 작창된 창작 판소리
- ✓ 2018년 10월 7일 뉴욕 카네기홀 제 48회 판소리유파대제전  
(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 600석 중 500석이 현지인으로 배정, 전석 매진)
- ✓ 판소리로 들어보는 <어머니의 마음>

## ● 김소라 명창

-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 ✓ 제 25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부문 명창부 대상(대통령상)
- ✓ (사)한국판소리보존회 미국 동부 지부장
- ✓ 한국판소리진흥원(K-PAN) 대표



### 영어로 판소리를 창작하게 된 **계기와 배경**

- ✓ 판소리의 대중화, 세계화를 늘 생각하고 시도
- ✓ 2009년 시애틀 우정축제에서 <토끼와 거북이>를 창작 판소리 형태로 영어로 불러 봄
- ✓ 2015년 어학연수 당시 우연히 speaking 시간에 판소리 <사랑가>를 부르게 됨  
<사랑가>가 슬픈 곡이 아님에도 전율이 느껴진다는 반응
- ✓ 미국에서 관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판소리 가사를 영어로 하여 판소리 발성의 매력을 알리고 싶었음

### **‘어머니’와 ‘어머니의 마음’을 주제로 고려한 특별한 이유**

- ✓ 한국적인 소울과 정서를 영어 판소리에 담아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었음
- ✓ 판소리 5대가(다섯 바탕)에 녹아 있는 공통적인 정서 - 어머니의 모성
- ✓ 모성애는 문화가 다른 외국인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만국의 감점이라고 생각했음

### 영어 판소리 완성까지의 전반적인 **작창 과정**



- ✓ 가곡 <어머니의 마음> 에서 모티프  
+ 딸로서의 마음 / 엄마로서의 마음 (명창 본인의 인생과 감정 응집)
- ✓ 스토리 정리하여 1개 아니리와 3개의 창으로 구성

- ✓ 스토리를 영어로 가사화
- ✓ 현지 관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다듬기 (미국 현지 제자와 EBS 강사에게 감수 받음)

- ✓ 북 장단에 맞춰 부르면서 녹음 (구전심수, 도제식)
- ✓ 미국 현지 제자와 여러 번 불러보며 다듬기 (속도, 발음, 휴지 등 고려)



# 연구 결과

## 창작과정

### 영어 판소리 완성까지의 전반적인 작창 과정 (아니리)

#### 어머니의 마음 (가곡) - 모티드

낳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 없어라

#### 한국어 스토리 (창작)

출산의 모든 고통을 잊고  
어머니는 밤낮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삶을 희생하시고  
헌신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늘아래,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 영어 (가사화)

Forgetting all the pains of  
giving birth,  
Mother raises us,  
cares for us day and night.  
She comforts us sacrificing  
and devoting her life.  
Under the sky, which love is  
greater than a mother's love?  
Mother's love is  
boundless and forever.

**아니리** → 창이 시작하기 전 스토리의 배경 설명, 창과 창 사이 연결 /  
눈물이 날 정도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함

### 영어 판소리 완성까지의 전반적인 작창 과정 (*아니리*)



### 영어 판소리 완성까지의 전반적인 작창 과정 (창1)

- ✓ 가사: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후회,
- ✓ 장단: 중모리 (보통 빠르기, 12박 장단, 4분음표 ♩가 12개)

⊖	○		○			○	○	⊗	⊖		○
합	궁	딱	궁	딱	딱	궁	궁	척	궁		궁
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리북>

### 영어 판소리 완성까지의 전반적인 작창 과정 (창1 - 종모리)

#### 한국어 스토리(창작)

사랑의 어머니,  
나의 자비로운 어머니.  
저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당신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성스러운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베풀어주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영어 (가사화)

Mother of love /  
My merciful mother /  
I did not know your undying love /  
I was slow to understand how wide and long /  
and high and deep is your love /  
You showed me the right way things should be done /  
Now I desire to know your love /  
Never ending holy love /  
I'd like to give you what you gave /  
I'd like to give you what you gave to me /

창 → 한 장단, 12박 안에서 가사를 조정

# 연구 결과

## 창작과정

영어 판소리 완성까지의 전반적인 작창 과정 (창1 - 종모리)

사례 1 : 강조하고 싶은 의미어는 1박(합), 9박(척)에 배치

⊖	○		○			○	○	⊗	⊕		○
합	궁	딱	궁	딱	딱	궁	궁	척	궁		궁

I did not know your **un**dying love -

**Never** ending - - - **ho**ly lo ve

영어 판소리 완성까지의 전반적인 작창 과정 (창1 - 종소리)

사례 2 :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박수를 길게 끌기

⊖	○		○			○	○	⊗	⊖		○
합	궁	딱	궁	딱	딱	궁	궁	척	궁		궁

Mo - ther of - - *lo* - - - *ve* - -

My - - mer ci ful *mo* - - - *ther* -

Never *ending* - - - - ho ly lo ve

### 영어 판소리 완성까지의 전반적인 작창 과정 (창1 - 종모리)

사례 3 : 긴장감 또는 호흡을 위해 잠시 끊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  
5,6박(딱, 딱)에서 휴지

⊖	○		○			○	○	⊗	⊕		○
합	궁	딱	궁	딱	딱	궁	궁	척	궁		궁

I did not know ㄹ ㄹ your undying love -

I'd like to give you ㄹ ㄹ what you ga - ve -

영어 판소리 완성까지의 전반적인 작창 과정 (창1 - 종모리)

사례 4 : 호흡과 발음 고려하여 한 장단에 너무 많은 어휘 넣지 않기

⊖	○		○			○	○	⊗	⊕		○
합	궁	딱	궁	딱	딱	궁	궁	척	궁		궁

You showed me the right way things should be done -



### 번역가들이 판소리를 번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 한국말로도 어려운 고어들은 직역하려 하기보다 판소리 이면(裏面)을 전달하기를.  
(아무리 잘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100년 전 작품의 당대 정서, 시대,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상화가 되어 버림)
  - ✓ 장단, 박자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기를.  
(이론적이 아닌, 판소리를 한 대목 정도 배워보고 적용해 보기)

### 판소리의 **세계화**가 가능하기 위한 노력

- ✓ 판소리 발성(진성)을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노력
- ✓ 정통 판소리도 지루하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압축해서 공연하는 변화가 필요
  - ✓ 여러 서양 악기, 음악, 퍼포먼스를 곁들인 판소리 공연 시도
    - ✓ 이런 모든 시도가 가능하도록 후학 양성

# 결론 및 논의

- **영어로 판소리를 창작하는 과정**
  - 한국어로 스토리 구상, 영어로 가사화, 장단에 맞추기
- **장단(중모리)에 가사를 엮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식**
  - 한 장단, 12박 안에서 영어 가사를 구 혹은 절 단위로 조정
  - 강조하고 싶은 의미어는 1박(합), 9박(척)에 배치
  -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박수를 길게 끌기
  - 긴장감 또는 호흡을 위해 잠시 끊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 5,6박(딱, 딱)에서 휴지
  - 호흡과 발음 고려하여 한 장단에 너무 많은 어휘 넣지 않기

*판소리는 “살아 있다”.*

*제자마다 음색과 목소리가 다르고, 똑같은 구절을 불러도 모두 느낌이 다르다.*

*서양곡은 악보화 되고 정형화되어 있지만 판소리는 “활어” 와 같다. 판소리꾼의 발성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이런 발성이 다른 언어로도 표현되길 바란다. 언어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면 소리만 지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고 감동은 감소될 수 있다.*

*내가 영어로 판소리를 부르고 다른 서양 음악과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했을 때는 이단아 였으나, 지금 세대의 친구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명창 김소라 인터뷰 내용 중)



*Translating*

# SQUID GAME



# Waxing *Visible* on Korean Film

What are the key invisibles non-Korean speakers are faced with when viewing Korean films?

What difficulties does this present?

How many of you questioned the translation in the subtitle, or found it difficult to make sense of?





# Characterising Gi-hun: Bad Table Manners



# Something Strange is Going on Here!



# Sarcasm and the *Huaiting* Fist Pump





# *Sajangnim*: Characterising the Pakistani Immigrant by His Experience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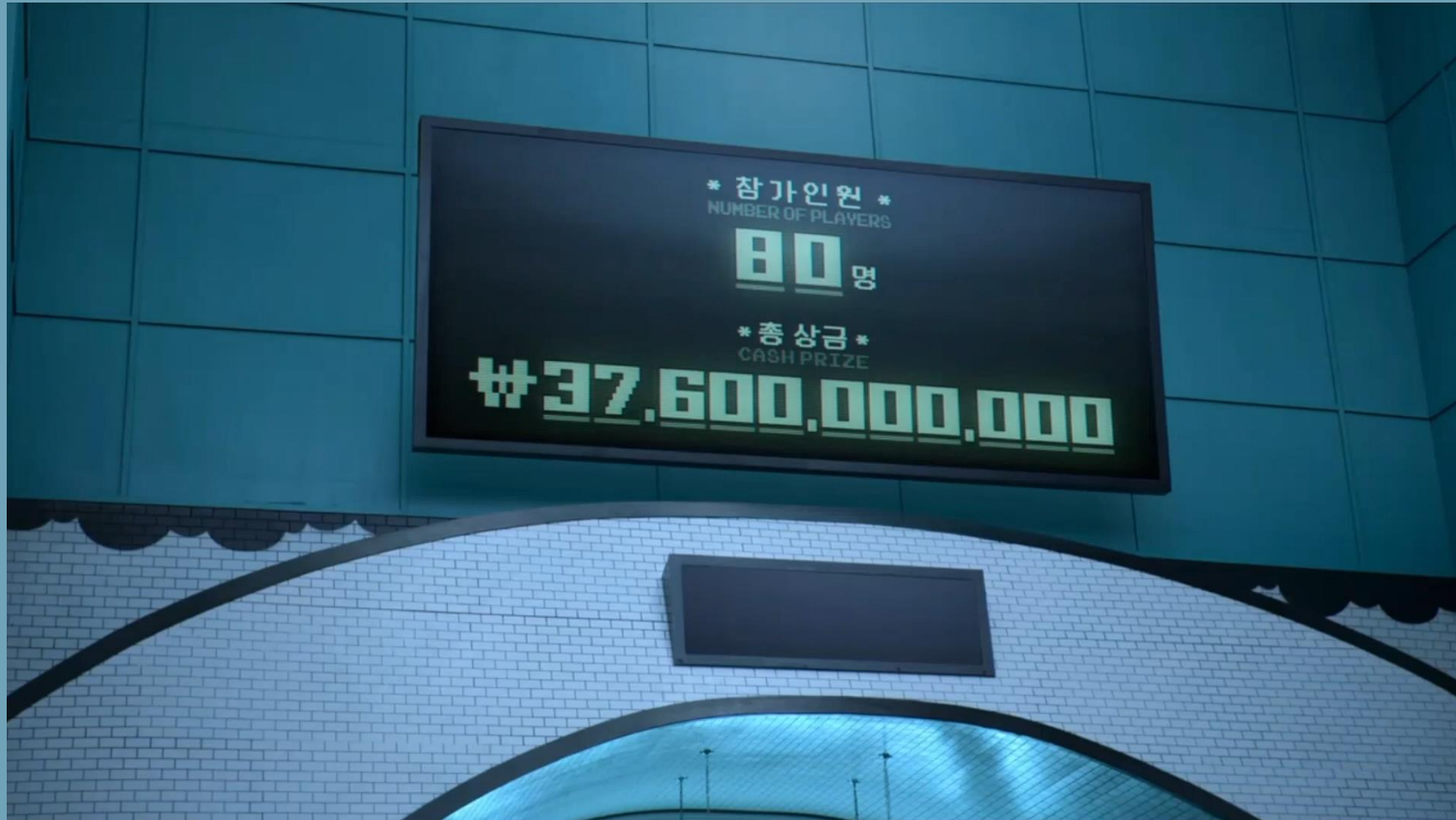


# Playing with Politeness: Fear and Leaking Emotions



**You're from North Korea, huh?  
Then wave theirs. Hmm?**

# “Old Man” or “Oppa”?



# *Hyeong!* Precise Relations Revealed Only in Korean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se Interpersonal Relations, No matter How Basic They May Seem*



[Gi-hun humming]

## Interactivity and Crowd Sourcing in Our Final 3 Talks

For our remaining three talks we want to demystify the *invisibility* in Squid Game that **you want to know about**. So, we are making these talks interactive – crowd sourcing our content from your questions and interests. Please drop us a line and tell us what you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We will then select questions and subjects to explore at the next talk!

TalkingLearningKorea@gmail.com

## Where to Find out More...

For the latest on from Oxford University Korean Studies talks and events, and regular updates on the Korean Wave, *please follow us on Twitter: [twitter.com/KInConversatio1](https://twitter.com/KInConversatio1)*

And, for those of you who want to find out more about translating Korean media, our book *Understanding Korean Film: A Cross-Cultural Approach* will be released this November.

